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A small icon of a document with a diagonal line through it, indicating a disclaimer.

碩 士 學 位 論 文

연구중심대학도서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

2009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專攻

李 泰 淳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祐 範

연구중심대학도서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Method of Using Library
in Research University
: Focused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專攻

李 泰 淳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祐 範

연구중심대학도서관의 효과적
활용 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 Method of Using Library
in Research University

: Focused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위 論文을 圖書館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8年 12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文獻情報學科

文獻情報學專攻

李 泰 淳

李泰淳의 圖書館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8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목 차

표 목 차	iv
그림목차	vi
국문초록	vi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3. 연구의 제한점	3
II. 이론적 배경	4
1.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	4
2. 연구중심대학의 발전	6
2.1 외국의 연구중심대학	7
2.2 국내의 연구중심대학	11
1) 서울대학교 연구인력	13
2) 서울대학교 2001년 이후 SCI논문 실적	15
2.3 대학 평가 기준	16
3. 연구중심대학도서관	19
3.1 연구중심대학 도서관의 ARL요건	19
3.2 외국대학 및 서울대학의 도서관장서	21
3.3 외국대학 및 서울대학의 대학총예산 대비 도서관총예산	22
III. 도서관 자료 활용에 관한 조사	23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23
2. 설문지의 문항구성	23

3. 설문자료 분석	24
3.1 응답자 유형	24
1) 설문 응답자의 학위구분	24
2) 설문 응답자의 전공분야별구분	24
3.2 연구주제 관련 자료입수 현황	25
1) 자료 검색 및 입수 기간	25
2) 대학도서관에서 입수한 주제 관련 자료	27
3) 대학도서관 입수 자료 및 자료 이용기관	29
4) 자료의 검색 및 입수를 위해 이용한 기관	30
5) 외국자료(언어구분) 참조현황	32
6) 도서관 방문 횟수	33
7)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횟수	34
3.3 자료매체 선호	35
1) 용어 정의	35
2) 교육환경의 변화	36
3) 연구 주제 관련 매체별 입수 자료	37
4) 전자자료 이용(검색)장소	38
5) 전자자료 구독중단 및 사유 인지	39
6) 구독 인쇄 자료를 전자 자료로 전환	40
7) 신규자료 구독 시 자료매체 선호	41
8) 전자자료 자료정보원	42
9) 인쇄자료 자료정보원	43
10) 학위별 연구자 자료정보원	44
11) 전공별 연구자 자료정보원	45
12) 학위별 연구자 자료 매체 선호	47

3.4 도서관 홍보 및 교육 인지	49
1) 도서관 홍보 및 이용교육	50
2) 메일링 서비스	51
3) DB교육 및 이용안내	52
4) 전자정보원 이용안내	53
5) 상호대차 이용	53
6) 색인, 초록 정보제공	54
3.5 도서관 인지	55
1) 전공자료 중 외국자료(언어구분)	55
2) 도서관 방문 포기 현황	56
3) 도서관 자료 수서 정책	57
4) 도서관 신뢰도	58
5) 도서관 역할의 인지도	59
IV. 결론	60
참고문헌	62
부록	66
ABSTRACT	71

표 목 차

<표 1> 대학의 기능에 의한 대학의 종류와 특징	5
<표 2> 2008년 상해교통대학발표 국가별 100위내 대학교 수	11
<표 3> 2008년 THES-QS 국내대학순위	13
<표 4> 단과대학(원)별 교수, 박사후연구원, 석박사 대학원생 현황	14
<표 5> 서울대학교 등록 학생수	15
<표 6> 서울대학교 국가별 외국인 교수 현황	15
<표 7> 서울대학교 2001년 이후 SCI논문 실적	15
<표 8> 카네기분류(2000년판)에 따른 구분 체계 및 기준	17
<표 9>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분류	18
<표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팀의 분류	18
<표 11> 외국대학 및 서울대학의 도서관장서	21
<표 12> 외국대학 및 서울대학의 대학총예산 대비 도서관총예산	22
<표 13> 설문지 문항 구성표	23
<표 14> 설문 응답자의 학위 구분	24
<표 15> 설문 응답자의 전공분야별 구분	24
<표 16> 자료 검색 및 입수 기간	25
<표 17> 자료 입수기간 및 자료정보원	26
<표 18> 대학도서관에서 입수한 자료	27
<표 19> 대학도서관 입수자료 및 자료이용기관	29
<표 20> 대학도서관 입수자료 및 자료정보원	29
<표 21> 자료의 검색 및 입수를 위해 이용한 기관	30
<표 22> 외국자료(언어구분) 참조현황	32
<표 23> 도서관 방문 횟수	33
<표 24>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횟수	34

<표 25> 전자매체를 통한 입수 자료	37
<표 26> 전자자료 이용(검색) 장소	38
<표 27> 전자자료 구독 중단 경험	39
<표 28> 구독 중단 사유 인지	39
<표 29> 구독 인쇄 자료를 전자 자료로 전환	40
<표 30> 신규자료 구독 시 자료매체 선호	41
<표 31> 전자자료 자료정보원 분포	42
<표 32> 인쇄자료 자료정보원 분포	43
<표 33> 학위별 연구자 자료정보원 비교	44
<표 34> 전공별 연구자 자료정보원 비교	45
<표 35> 학위별 연구자 자료매체 선호	47
<표 36> 인쇄자료 선호 이유	47
<표 37> 도서관 홍보 및 이용교육	50
<표 38> 메일링 서비스 인지도	51
<표 39> DB교육 수강여부	52
<표 40> DB교육 추천여부	52
<표 41> 전자정보원 이용안내	53
<표 42> 상호대차 이용 여부	53
<표 43> 색인, 초록 정보 제공 여부	54
<표 44> 전공자료 중 외국자료(언어구분)	55
<표 45> 도서관 방문 포기 현황	56
<표 46> 전자매체 자료 수서 정책	57
<표 47> 도서관 신뢰도	58
<표 48> 도서관 역할의 인지도	59

그 립 목 차

<그림 1> 외국대학 및 서울대학의 도서관장서 증가	21
------------------------------------	----



국 문 초 록

이 연구는 대학 목표에 따른 지원시설로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생성에 핵심적 학술 및 최신 연구 정보 자료의 제공자로서 도서관 역할의 증대를 위해 석·박사학위 연구자의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서관 활용과 인지도 현황을 조사하여 연구자에게 도서관 활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찾는 데 목적을 두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의 기능에 따른 구분,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을 살펴보고 각 나라별 연구중심대학의 발전에 대하여 논하였다. 연구자의 연구결과물인 학위논문 생성과정에서의 도서관 활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기간, 자료매체에 대한 선호, 도서관 홍보와 이용자 교육의 참여 그리고 도서관 수서정책의 신뢰,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자의 인지도를 설문·분석하여, 연구결과물 생성기간의 단축을 위한 장서개발 등 변화에 따른 도서관 홍보와 교육의 개선점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연구자에게는 연구결과물인 학위논문 작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이는 도서관에 대한 연구자의 신뢰와 인지도, 세계 주요 연구중심대학으로 발전을 목표로 하는 대학의 지원기관으로 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1세기의 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통하여 광범위한 분야의 지식 생산과 보급에 힘쓰는 학문적 기관인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연구중심대학은 대학의 역할 중에서 특히 연구에 초점을 둔 대학으로 충분한 재정지원, 우수한 학생 및 교수, 신진 연구 인력 유치, 기술인력 확보, 좋은 시설과 연구 장비, 각종 제도 관리 등 도서관이나 정보, 기술, 실험실 등 높은 수준의 교육 연구가 가능한 필수적인 기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연구중심대학은 탁월한 연구 인력이 연구에 매진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산출하고 이를 가장 우수한 학생들에게 교육하고 더 나아가서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문화의 성숙에 기여하는 대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¹⁾

외국대학들은 연구중심대학을 주축으로 창의적인 연구결과물을 생산할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인적자원 육성에 힘쓰고 있으며 국가 전체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 국가의 지식정보의 자산화 및 지식강국화는 유능한 연구인력, 우수한 연구실험 인프라, 그리고 최적의 지식정보자원이 투입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때 그 효과가 최대화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동력을 제공해야 하는 국내 학술연구도서관은 공부방, 실험실 중심의 활용, 국가 공공기반시설로서의 기반 미흡,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부족, 도서관간 상호 연계 체제 미흡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을 정도로 취약한 것이 사실이다.²⁾

1) 권혁주. 2000. 『세계적 수준 10개 연구중심 대학의 교육지표와 연구진흥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p. 8.

2) 박동철. 2006.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예산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p. 152.

대학도서관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장서개발정책, 장서관리정책,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개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노력은 대학의 목표에 따른 지원시설로서 연구자에게 주제 관련 자료의 신속한 제공과 최신 정보의 공급 등에 따른 연구자의 효과적인 도서관 활용이 곧 연구결과물 생산의 기간 단축 및 연구 관련 정보의 최신성을 유지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구자들에게 인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석·박사학위 연구자의 논문작성 과정에서 도서관의 활용 현황 및 인지도를 살펴보고, 학위 연구자의 연구결과물 생성에 대학 목표의 지원기관으로, 지식정보자원의 제공자로서 도서관 활용을 높이기 위한 도출점을 찾고자 석·박사학위 연구자를 중심으로 설문문을 분석하여 도서관 활용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학위논문 작성 시 연구자의 연구 주제와 관련된 자료의 검색, 입수과정 및 자료정보원 그리고 자료매체에 따른 이용 선호도, 도서관 인지도 등에 관한 설문문을 통하여 연구자들의 도서관 활용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효과적인 도서관 활용방안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위논문 작성 시에 참고문헌 등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고 수집하는 과정에서 도서관 자료와 서비스의 활용방안.

둘째, 지식 창출은 정보의 수집, 인지 그리고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 인간은 매체와 테크놀로지에 의존하게 되며 디지털 매체와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등장 및 발달은 지금까지 인간이 창출해 온 지식의 속도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사회전반에 영향을 주었고, 인터넷사용이나 기타 전자형태의 자료에 익숙

한 연구자들이 연구에 필요한 도서관 자료를 검색, 수집하는 과정에서 자료매체 선호도에 대한 변화와 요구의 분석.

셋째, 연구자들이 인지하고 있는 연구중심대학의 기반 시설인 도서관의 중요도와 도서관 관리, 수서 정책 등에 대한 신뢰도 분석.

마지막으로, 이상의 설문을 통하여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와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도서관의 역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실행한 조사 방법은 2008년도 8월 하반기 석·박사학위 연구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총132부의 설문지 답변을 받았으며 이를 대상으로 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로 통계처리 하였다.

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설문을 통한 인지도, 신뢰도 등 질문 형태를 정량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었기에 학위논문 연구자의 인지도만을 가지고 응답을 받았다.

둘째, 도서관의 예산 또는 정책의 변화, 대학 내의 환경 변화에 따른 내·외적 요인에 대한 분석 없이 연구자의 응답으로만 내용을 분석 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21세기의 과학기술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인간생활이 기존 아날로그식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뀌고, 인터넷의 발달은 지식의 확산속도를 빠르게 하여 지식의 전세계화를 주도하고 있다 할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으로 인해 도래한 정보 사회는 지식기반 사회로 이어졌으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식기반 정보화 사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강조되고 있다(한정선, 2006).

21세기 학문은 그 범위에 있어 상당히 세계적이다. 연구 결과는 즉시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학술 저널이 국제적으로 배포되며 그 밖의 출판물 역시 마찬가지이다. 연구 방법론이나 학문적 기준도 과거보다 훨씬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다.³⁾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은 학문의 다양화, 세분화 및 전문화를 가져왔고 정보공학, 생명공학, 나노기술, 환경공학, 우주공학 등 신산업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학문의 전문화와 세분화는 각 학문분야를 연결하는 학제간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지식화, 정보화, 기술화 및 세계화를 가져왔으며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심에 대학이 서 있다.⁴⁾

1. 교육중심대학과 연구중심대학

대학의 전략 유형의 목적에 따라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연구를 위주로 대학과 교수의 역할이 집중되고, 교육중심대학은 교육에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사회의 대학체계는 심오한 이론과 최첨단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연구중심 대학을 필요로 하는가 하면, 현장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리자와 기술자를 양성하는 전문직업교육

3) Philip G. Altbach and Jorge Balán. 2007. *World class worldwide*.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p. 16.

4) 권옥현 외. 2002.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성과관리 방향』.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p. 3.

중심의 대학, 지역사회의 특성과 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중심 대학 등도 필요로 한다. 또한 이미 사회에 진출하여, 경제, 사회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평생교육 대학도 대학체계에 서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⁵⁾

그렇다면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과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어떤 유형의 대학이든지 연구와 교육은 모두 중요하며, 단지 어디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가의 차이에 따라 연구 또는 교육중심으로 구분할 수 있다.⁶⁾ 연구중심대학에서는 연구를 위주로 대학과 교수의 역량이 집중되고 지식의 창출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대학원 중심대학, 학부과정의 교육은 대학원생이 많이 담당하고 교수평가에 연구논문이나 특허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교육중심대학은 지식의 전수를 통한 인재 양성을 기본이념으로 삼고, 학부중심대학으로 대학원과정이 없거나, 있어도 극히 적은 숫자의 대학원생을 배출하고 교수의 강의가 연구논문 발표보다 업적평가에 우선되고 있다. 대학의 기능에 의한 대학의 종류와 그 특징은 <표 1>과 같다.⁷⁾

<표 1> 대학의 기능에 의한 대학의 종류와 특징

대학의 종류	대학원수 (학부생비교)	교수수 (학생비교)	연구결과	연구시설
연구중심대학	많다	많다	많다	많다
교육중심대학	적다	적다	적다	적다
교육연구추구대학	다소있다	중간이다	조금있다	조금있다

5) 권혁주. 전계서. p. 2.

6) 정보섭. 2006. 『우리나라 대학의 정부연구개발 투자 특성 분석』.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p. 8.

7) 권옥현 외. 전계서. p. 11.

2. 연구중심대학의 발전

중세 대학은 그 사회에서 문화적·지성적 기관으로 봉사해 왔지만 전통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은 아니었다. 근대에 들어오면서 대학이 단순한 지식의 보존과 전수라는 좁은 의미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지식창조의 산실로 그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는 대학의 새로운 역할론이 싹트기 시작했다. 연구를 대학의 사명으로 정식 도입하기 시작한 것은 1810년에 독일의 베를린(Berlin)대학에서 찾아볼 수 있다. 베를린(Berlin)대학의 창설자인 훔볼트는 독일의 구원은 “가르치는 것과 연구”로부터 온다는 슬로건을 내 걸었다.⁸⁾ 베를린대학은 “연구중심대학”의 효시일 뿐 아니라, “학문의 자유”를 건학이념으로 한 세계 최초의 대학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영국에서는 런던(London)대학이, 미국에서는 존스 홉킨스(John Hopkins)대학이 베를린대학을 모방한 연구중심대학으로 설립되었다.⁹⁾ 현재의 연구중심대학은 세계수준의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창의적인 연구 성과를 산출함으로써 국가혁신체제의 핵심 주체로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대학의 연구 능력과 특성화 정도가 낮은 후발국에서는 짧은 기간에 선진국을 추격해 기술 자립을 이룩하는 유용한 도구로 연구중심대학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선진국들의 연구중심대학은 대학 연구의 위상 증대와 대학 특성화와 함께 발전하였다. 대학의 연구 활동 증가와 국가의 전략적 연구 수요 증가로 대학 연구의 위상이 올라가자, 선진국들은 소수의 우수대학에 투자를 집중해 효율적으로 연구 성과를 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이들이 연구중심대학으로 특화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등교육의 대중화 과정에서 이들 대학들이 학생 수를 크게 증원하지 않고 연구 활동에 집중하면서, 학생 수가 크게 늘어난 교육중심대학들과 차별화되어 연구중심대학으로서의 위상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와 달리 후발국들은 기술추격전략의 일환으로 연구중심대학을 적극

8) 김성진. 2003. 『대학교-이상, 현실 그리고 개혁』. 서울: 한국교육미디어. p. 30.

9) 윤수인. 2003. 『21세기 대학 어디로 갈 것인가?』.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pp. 33-34.

육성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후발국의 대학들은 설립 역사가 짧고 대학 특성화와 제도개혁, 인프라 등에서 선진국 대학들에 비해 상당히 열세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에서는 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소수의 연구중심 대학을 선정해 짧은 기간에 제도 개혁과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선진국 수준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여 기술자립을 이룩하려는 목표를 추구하게 되었다.¹⁰⁾

2.1 외국의 연구중심대학

미국의 대학은 식민지 시대인 1636년에 하버드대학(Harvard College)이 설립된 이후 360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후 17-18세기에 걸쳐 북동부에 많은 대학들이 설립되었다. 그렇지만, 이들 대학은 성직자의 양성과 기독교적 인격 도약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매우 소규모의 교양 대학에 불과했다.¹¹⁾

19세기 말, 미국의 대학은 기업가들에 의해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대학 중 존스 홉킨스(John Hopkins) 대학은 미국에서 최초로 학문연구를 중시하는 연구중심대학의 이념을 내세워 학부과정 없이 대학원 대학으로 출범함으로써 종래 학부중심의 대학과는 구별되는 특징을 나타냈으며, 대학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것은 초대 총장 길먼(Gilman)을 비롯하여 독일에 유학한 학생들이 연구의 중요성, 학문의 자유, 대학조직의 새로운 모형에 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귀국한 결과였다. 존스 홉킨스(John Hopkins)대학이나 시카고(Chicago)대학이 연구중심대학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들 두 대학이 교육기능의 핵심인 학부보다 연구위주인 대학원을 중시했다는 점에서였다. 따라서 이들 대학을 대학원 대학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이러한 연구중심대학의 발전으로 미국의 대학 또는 학과는 세계적인 명성과 함께 최정상에 자리 잡게 되었다. ¹²⁾

10) 민철구, 이춘근. 2000. 『연구중심대학의 효과적 육성방안』.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p. 18.

11) 이광주. 1997. 『大學史 이념·제도·구조』. 서울: 민음사. pp. 412-413.

또한 미국은 학부와 대학원이 분리된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 대학은 대학원의 규모가 학부보다 크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학비 부담이 없으며 생활보조비 및 의료보험을 제공하고, 교수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교수에게 보직을 맡기지 않고 연구에 전념시킨다. 미국에는 약3,000개 이상의 대학이 있는데 이 가운데 150개 정도가 연구중심대학이다. 이 대학들은 경쟁에 의하여 연방정부가 배정해 주는 연구 자금의 80%를 받고 있다. 또 이들 대학은 교수들의 봉급이 높고 이들의 강의 부담은 낮은 편이며, 실험실이나 도서관 시설 등은 국가 평균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다.¹³⁾

영국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학부 교육을 중시하며, 극소수의 학부생을 선발하여 전원 기숙사에 입주시켜 질 높은 교육을 진행한다. 대학의 연구는 학부생이 대학원으로 진학하여 수행하나 재정의 국고 의존률이 지나치게 높고, 정부의 통제가 심하다. 그리고 대학원이 발달되지 못하였고 사회적으로도 박사학위를 그리 중시하지 않는다.

독일의 대학은 상당히 획일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강화되어 가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문에서는 평등과 사회 정의의 기본 구조를 굳건하게 유지하며, 또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고등학생들은 졸업시험의 일종인 아비투어(abitur)에 합격하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처음 1-2년간은 교양 및 전공기초를 배우고, 논술 및 구두시험을 통과하면 전공과정에 들어가고, 졸업시험에 합격하면 석사에 준하는 학위를 받는다. 대학원은 학부과정이 석사와 통합되어 있으므로 박사과정을 의미한다. 박사학위는 논문 및 구두시험을 통하여 받을 수 있으며 이 중에 우수학생들은 교수자격취득과정을 밟으며, 이 경우에도 논문과 구두시험을 합격해야만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다. 이러한 대학의 구조는 학생들의 학부 재학기간이 너무 길고 교과과정이 이론중심이어서 자신들의 수요와 능력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에 독일 정부는 실무교육의 강화, 학사와 석사과정의 분리, 대학의 입학생 선발, 대학운영의 독립성 제고, 인사권의 대학 이양 등과 같

12) 고대승. 2001. 「대학의 과학연구 지원체계의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p. 35.

13) Philip G. Altbach and Jorge Balán. op. cit. p. 6.

은 고등교육 개혁방안을 수립하였다.

프랑스의 대학은 학부생들이 대학입학 자격시험 취득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DEA(박사학위)프로그램에 입학하면서 다양한 기관의 연구과정에 들어간다. 프랑스의 경우는 순수 학문은 주로 아카데미크한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유니베르시테(Université)에서 그리고 응용학문은 전문 엘리트 양성을 위한 그랑제꼴(Grandes écoles)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¹⁴⁾ 그랑제꼴은 3년 또는 4년제로 운영되므로 졸업하려면 바칼로레아(Baccalauréat, 대학입학자격시험) 이후 최소 3년, 보통은 5-6년이 걸리므로 일반대학 졸업생보다 학업 연한이 2-3년 길고 교육수준이 높을 뿐 아니라 실제적인 교육에 치중함으로서 졸업생들은 장차 관공서나 각 기업체의 고급 간부 및 엔지니어로 진출하게 된다.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은 자연히 일반대학보다 그랑제꼴을 지망하게 되며,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도 깊은 교육이 실시됨으로서 프랑스의 영재들은 그랑제꼴을 통하여 배출되고 있다.

일본의 교육은 기업들은 최고 수준의 기술과 자원을 가지고 있으나 대학은 연구인력 조차 뒤져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대학은 4년제 대학과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학력주의와 서열화, 획일적인 교과과정 및 관리체계의 경직성 등이 계속 잔존하여 있다. 일반적으로 사립대학은 자금이 적게 드는 인문사회계열이, 국립대학은 이공계가 발전하였다. 대학원은 그다지 높은 수준의 교육을 하지 않았으며 논문만으로 박사학위를 수여하기도 하였다. 현재까지도 소규모의 대학원이 유지되고 있으며 의학과 공학에 박사 학위자가 전체의 80%에 달한다.

중국의 대학은 아편전쟁 이후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서양 및 일본 교육을 모방했고, 신중국 성립 이후에는 소련식 교육을 모방하였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에는 중국의 대학교육이 회복되고 개선되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대학 교육의 개혁동향으로 세계수준의 100대 중점대학 계획, 중점학과 육성의 211공정, 대학의 통합화, 국제화 추구, 대학입학제도의 개혁 등을 들 수 있다.¹⁵⁾ 사회주의 체제라는 계획경제 체제를 오랫동안

14) 김선미. 1998. 프랑스의 대학교육. 『비교교육연구』, 6: p. 261.

15) 이경자. 2006. 중국 대학교육 개혁의 동향. 『비교교육연구』, 16(1): p. 1.

고수하여왔기 때문에 정부 연구소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대학 재학생이 전체 학력인구 대비 10% 이하로 대중화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소수의 우수대학에 석사 3년, 박사 3년의 대학원이 설립되어 있으며, 학교가 아닌 출연연구소의 석·박사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기초과학분야에서는 중국과학원을 중심으로 하는 출연연구소의 역할이 상당히 크며, 중국에서 연구중심대학이란 일류대학을 의미한다.¹⁶⁾

매년 상해교통대학(Shanghai Jiao Tong University)의 고등교육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의 경쟁력 순위는 대학의 연구 성과에 대한 순위로 최근 2008년 8월에 발표한 세계대학순위(Academic Ranking of World Universities, ARWU)에서 국가별 100위내 대학교의 수를 살펴보면(표 2 참조) 하버드(Harvard)대학의 경우는 6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동경대가 19위, 교토대가 23위, 오사카대 68위, 도호쿠대 79위를 하여 세계순위 100위 내에 4개의 대학이 선정되었다. 한국의 대학 경우는 서울대가 152-200권에 들어가 있을 뿐이다.¹⁷⁾



16) 권옥현 외. 전계서. pp. 27-39.

17) 한국과학재단. 2008. 중국상해교통대발표세계대학순위분석. [cited 2008. 11. 1].
<http://www.kosef.re.kr/kboard/notice/board_view.php?code=trend_010404&no=1758370&rid=1758370>

<표 2> 2008년 상해교통대학발표 국가별 100위내 대학교 수

국가별	10위 기준	20위 기준	50위 기준	100위 기준
미국	8	17	39	54
영국	2	2	3	11
독일				6
스웨덴				4
일본		1	1	4
캐나다			2	4
스위스			1	3
프랑스			2	3
호주				3
네델란드			1	2
덴마크			1	2
노르웨이				1
러시아				1
이스라엘				1
핀란드				1

2.2 국내의 연구중심대학

국내의 대학이 고도의 지식을 생산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이러한 어려움은 오늘날의 지식이 서양과학의 전통을 따라 형성되고 있고, 그래서 지식생산을 해왔던 우리의 역사가 짧다는 데서 찾을 수도 있다. 짧은 역사의 불리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대학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18) 초기 대학의 연구기능은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하였으나 기초학문의 연구

18) 고철환, 2000.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와 대학의 역할. 임지순, 강명구의, 『새천년의 과학기술과 지식기반사회』, 서울: 나남출판. pp. 222-223.

결과가 국가경제와 직결, 국가적인 육성사업으로 변화되었다. 선진외국의 경우 대부분의 창의적 연구는 연구중심대학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의 연구중심대학의 과제로는 인문사회분야는 토착학문의 세계화 및 외래학문의 토착화 그리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사회문화적 제도 개선 등이 있고 자연과학분야는 선진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의존도 탈피, 창의적 이론 및 기술의 개발에 의한 지적 자산 확보, 창의적인 인재양성의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 국내 연구중심대학들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연구 인적자원 육성에 열을 올리고 있으며, 석·박사학위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려 하고 있다. 2008년 영국의 고등교육 주간지 THES(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및 교육 분야 다국적 컨설팅기업인 QS(Quacquarelli Symonds)가 발표한 국내 대학의 순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²⁰⁾ 국내 대학의 세계 순위가 높아지기는 하고 있으나 아직도 선진외국 대학에 비하면 많은 투자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대학들은 지식정보화시대로의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는 현실 속에서 대학은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고 가치 있는 지식을 지속적으로 창출해야 한다는 시대적 소명을 위하여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을 지향하면서 대학원 교육을 중심으로 첨단 연구를 통한 우수한 전문인력 양성과 창의적 연구 성과의 증대를 추구하고 있다.

국내 대학으로 THES-QS의 2008년 50위를 한 서울대학교는 1946년 9개 단과대학(문리과, 공과, 농과, 법과, 사범, 상과, 의과, 예술, 치과)과 1개의 대학원으로 구성된 국립대학교로 개교하였으며, 1976년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다음 논문자격시험에 합격한 후에 학위 논문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게 되는 석·박사과정을 도입하였다. 1995년에 서울대학교 2000년대 미래상을 만들어 그 모토를 이어가면서 “국제수준의 대학원중심대학”을 표방, 21세기 들어서면서 학부 교육과 기초 교육을 더욱 강화하면서, 세계적

19) 권옥현 외. 전제서. p. 12.

20) The Times. 2008. World University Rankings. *The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cited 2008. 11. 1]
<<http://www.timeshighereducation.co.uk/hybrid.asp?typeCode=243&pubCode=1>>

인 대학원 중심, 연구중심 대학으로의 비약을 목표로, 2007년에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2010년까지 교육을 세계 최상급 수준으로 격상, 2015년까지 학제간 연구의 집중 지원으로 세계 정상급 연구수준을 확보, 2025년에는 세계 정상급 연구중심 대학으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확립하였다.²¹⁾

<표 3> 2008년 THES-QS 국내대학순위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대학교	63위	51위	50위
KAIST	198위	132위	95위
POSTECH	244위	233위	188위
연세대	484위	236위	203위
고려대	150위	243위	236위

1) 서울대학교 연구인력

서울대학교의 연구 활동의 주체인 연구 인력은 교수를 중심으로 석·박사과정 대학원생과 박사후연구원(post-doctor), 기타 연구원 (석사급 또는 학사급)으로 구분된다. 2005년 2학기 1,720명의 전임교수를 중심으로 189명의 박사후연구원, 10,637명의 석·박사과정 대학원생이 있다. 따라서 교수 1인당 평균 6-7명의 연구원들이 한 팀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셈이다(표 4 참조).²²⁾ 2008년 4월의 통계를 살펴보면 등록 학생수가 학사과정 16,990명, 석·박사과정 9,615명으로 총 26,605명(표 5 참조). 국제화에 대한 노력으로 22개국의 113명의 국제적인 석학들을 교수로 초빙, 연구 수준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표 6 참조).²³⁾

21) 서울대학교. 2008. 『서울대 소개』. [cited 2008. 11. 1]
<http://snu.ac.kr/about/ab0101_tab1.jsp>

22) 서울대학교. 2006. 『서울대학교 백서 2004-2005』. 서울: 서울대학교. p. 94.

23) 서울대학교. 2008. 『통계현황』. [cited 2008. 11. 1].
<<http://snu.ac.kr/about/ab0103.jsp>>.

<표 4> 단과대학(원)별 교수, 박사후연구원, 석박사 대학원생 현황

대학/구분	교수수 (명)	연구원 수(명)				교수 1인당 연구원
		박사후 연구원	박사과정 대학원생	석사과정 대학원생	총 연구원	
인 문 대 학	167	12	204	364	580	3.5
사 회 과 학 대 학	111	10	147	439	596	5.3
자 연 과 학 대 학	200	86	317	757	1,160	5.8
간 호 대 학	19	0	42	109	151	7.9
경 영 대 학	42	0	58	505	563	13.4
공 과 대 학	299	36	680	1,759	2,475	8.3
농업생명과학대학	111	10	192	397	599	5.4
미 술 대 학	35	0	39	158	197	5.6
법 과 대 학	41	0	132	366	498	12.1
사 범 대 학	103	3	278	583	864	8.4
생 활 과 학 대 학	27	17	77	120	214	7.9
수 의 과 대 학	39	4	54	84	142	3.6
약 학 대 학	42	11	68	197	276	6.5
음 악 대 학	42	0	31	104	135	3.2
의 과 대 학	273	0	360	403	763	2.8
협 동 과 정	0	0	0	3	3	
보 건 대 학 원	21	0	73	259	332	15.8
행 정 대 학 원	25	0	65	371	436	17.4
환 경 대 학 원	19	0	66	220	286	15.0
국 제 대 학 원	16	0	0	240	240	15.0
치의학 대학원	88	0	111	205	316	3.6
계	1,720	189	2,994	7,643	10,826	6.3

<표 5> 서울대학교 등록 학생수

기준: 2008. 4

구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계
남	10,507	3,904	1,595	16,006
여	6,483	3,109	1,007	10,599
계	16,990	7,013	2,602	26,605

<표 6> 서울대학교 국가별 외국인 교수 현황

기준: 2008. 4

미국(44)	캐나다(13)	독일(7)	중국(7)	일본(6)
영국(5)	프랑스(4)	이탈리아(4)	인도(4)	러시아(3)
호주(3)	우크라이나(2)	방글라데시(2)	베트남(1)	폴란드(1)
덴마크(1)	멕시코(1)	벨기에(1)	스페인(1)	아일랜드(1)
오스트리아(1)	핀란드(1)	총22개국 113명		

2) 서울대학교 2001년 이후 SCI논문 실적

서울대학교는 세계수준의 종합연구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그동안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위상을 확보하고 있다. 국제 인증학술지(SCI(E) 등재 학술지) 게재 논문 수는 괄목한 만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국제적으로 주목 받는 많은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 발표되고 있다.(표 7참조) ²⁴⁾

<표 7> 서울대학교 2001년이후 SCI논문 실적

(단위 : 편, 위)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SCI 논문수	2,589	2,713	3,062	3,116	3,946	3,635	4,291
세계순위	40	34	35	31	30	32	24
이공계인력	973	965	1,034	1,101	1,137	1,154	1,158
교수1인당 SCI논문수	2.66	2.81	2.96	2.83	3.47	3.15	3.53

24) 서울대학교 연구처. 2008. 『통계자료』. [cited 2008. 11. 1].
<<http://research.snu.ac.kr/>>.

2.3 대학 평가 기준

대학의 성과평가 방법 또한 대학의 주된 사명내지 설립목적이 무엇이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에 대학의 주된 설립목적이 연구에 있다면 연구 성과를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고, 교육이 목적이라면 교육의 성과를 주된 대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만일 어느 한 가지 평가기준을 설정해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연구중심대학의 개념이 일찍부터 발달한 미국에서는 기존의 대학을 대학원과 연구비 규모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이안에서 연구중심대학은 연방정부의 연구기금을 많이 받고 학부에 비해 대학원 규모가 크고, 상당수의 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교수들의 수업부담이 적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²⁵⁾

미국의 카네기재단에서 만든 카네기분류(Carnegie classification)(표 8 참조)²⁶⁾에서는 4년제 대학의 유형을 연구중심대학, 석사학위 수여대학 그리고 학사학위 수여대학 등으로 다양화해 어느 대학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카네기재단 분류에서 학사학위 수여대학은 강의중심대학으로 교수들이 많은 시간 강의를 담당하고 있으나 연구부담은 거의 없이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는 장점 있으며, 연구중심대학에서는 학부교육보다는 대학원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경우 강의는 강의조교들이 담당하고 있다.²⁷⁾

25) 민철구, 이춘근. 전게서. p. 20.

26) 한혜영. 2005. 연구중심대학의 도서관 지원과 연구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p. 28.

27)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2004.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방안 모색 : 세미나 자료집』. 서울: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pp. 5-6.

<표 8> 카네기분류(2000년판)에 따른 구분 체계 및 기준

분류	상세분류	기준		비고
		수여 학위범위	연간 수여학과수 및 학위수여자수	
박사/연구중심대학 (Doctoral /Research Universities)	연구중심대학 (광범위) (Extensive)	박사학위까지	- 최소 15개 학과에서 50개 이상 박사학위 수여	광범위한 분야의 학사학위 과정
	연구중심대학 (집중) (Intensive)	박사학위까지	- 최소 3개 학과에서 최소 10개 박사학위 수여 혹은 연간 전체 학과에서 최소 20개 박사학위 수여	광범위한 분야의 학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수여대학(Master's Colleges and Universities)	석사학위 수여대학 I	석사학위까지	- 3개 이상 학과에서 40개 석사학위 수여	광범위한 분야의 학사학위 과정
	석사학위 수여대학 2	석사학위까지	- 20개 이상 석사학위 수여	광범위한 분야의 학사학위 과정
학사학위 수여대학 (Baccalaureate College)	교양학부 (Liberal Art)	학사학위까지	- 전체 학위 중 50%의 학사학위 수여	학사과정 위주
	일반(General)	학사학위까지	- 전체 학위 중 10-50 %의 학사학위 수여	학사과정 위주
	학사 및 준학사 학위수여대학 (Colleges)	학사학위까지	- 전체 학위 중 10%의 학사학위 수여	주로 준학사학위 및 수료증 수여
준학사학위 수여대학 (Associate's College)	준학사학위 수여 대학	학사학위까지	- 전체 학위 중 10% 이하 학사 학위 수여	준학사학위 및 수료증 수여
전문가 양성대학 (Specialized Institution)	단일분야 학위수여기관	박사학위까지	-	대부분의 학위를 단일분야에서 수여
부족대학 (Tribal Colleges and Universities)	부족대학	박사학위까지	-	부족에서 관리 미국인디언고등 교육컨소시엄 회원교

국내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연구중심대학 육성에 관한 기초 연구가 활발하기 시작하였다. 장희익 등은 대학의 유형 분류 기준으로 목적에 따른 분류, 교육단계에 따른 분류, 교육방식에 따른 분류 등을 거론하고, 각 대학을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고 하였다(표 9 참조).

<표 9> 서울대학교 연구팀의 분류

구분	학부중심	대학원중심
직업지향 교육기관	- 학부단계의 교육만으로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적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진출할 인력을 양성 - 실무교육에 중점	- 고급전문직종에 적합한 인재들을 양성하는 대학 - 공학, 의학 등 그 수준이 대학원 정도의 심화된 교육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적합
학문지향 교육기관	- 일반학문 위주의 학부 교육에 중점을 두고 졸업 후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폭넓은 사회분야로 진출할 학생들을 양성하는 대학 - 심도 깊은 교양교육에 치중하는 미국의 일부 학부중심대학들이 여기에 속 한다	- 우수한 교수와 연구 설비, 지원 설비를 갖춘 대규모의 대학원교육을 통해 고수준의 연구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 - 학부정원이 대학의 2/3이하인 대학원 중심대학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민철구 등은 이공계대학 연구의 활성화 방안 중 하나로 대학의 특성화를 거론하면서 다음과 같은 분류기준을 제시하였다(표 10참조). 28)

<표 10>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팀의 분류

단위: %

구분	연구 기능	교육 기능	산학협력 및 사회봉사	비고
연구중심 단설대학원	80	20	10	학부과정 없이 석·박사 과정을 통합 운영
대규모 대학원 위주의 연구중심대학	60	40		대학원중심 대학
대학원병설교육중심대학	30	60	10	실무능력에 집중
학부위주 교육중심대학	10	70	20	실무중심
기술중심대학	10	60	30	개방대학 및 전문대학

이와 같이 대학의 설립목적에 따라 각기 다르게 대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획일적인 평가기준이 적용 될 수는 없을 것이다.

28) 민철구, 이춘근. 전계서. pp. 21-23.

3. 연구중심대학도서관

3.1 연구중심대학 도서관의 ARL요건

연구중심대학의 최종목표는 우수한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기초학문연구의 결과물은 논문, 특허 등 지적자산으로 나타난다.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은 이러한 지적자산을 통하여 학문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또한 우수한 연구결과라는 최종 목표를 위하여 고급연구 인력의 교육 및 훈련, 특정연구과제에 대한 연구행위, 학술연구결과물의 학회 발표 등 학술활동, 산학협력 즉 산업체는 대학에 연구비 및 시설을 제공하고 대학은 연구인력공급, 기술자문, 연구과제 수행 등을 산업체에 제공하는 것, 국제 공동연구과제 개발 콘소시움 형성, 공동학술회의 개최, 학생교류 등을 통한 국제협력,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활동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고 대학원 박사과정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창의적인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박사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훌륭한 연구중심대학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 중요한 것이 연구 인프라 확충이다.

대부분의 연구중심대학은 산업화된 국가의 선진 경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우수 대학들의 세계 랭킹을 보면, 특히 선진국에 연구중심대학이 많음을 알 수 있다. 21세기 사회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생산을 촉진하게 하는 대학의 연구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대학을 통한 국가적 연구경쟁력 제고에 대한 필요성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선진 외국은 연구중심대학을 주축으로 하여 창의적인 연구결과물 뿐 아니라 선도적인 연구인력을 배양하고 국가 전체의 연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등교육 부분의 연구경쟁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 미국의 경우는 1975년부터 연구중심대학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서남수 1998)하여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1997년 교육부의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연구중심대학 육성방안’을 제시하였고 99년 BK21사업으로 본격적인 연구중심대학의 육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권옥현 외2002).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연구중심대학을 구분하는 객

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은 없는 상태이다.

미국의 연구중심대학은 연구 활동 기능을 지원하는 핵심기구로서 도서관을 주요 자원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구중심대학의 도서관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연구도서관협의회(ARL,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는 연구중심대학 도서관으로서의 기본자격을 구비해야 가입이 가능하며, 연구도서관협의회 소속 회원도서관의 장서 및 서비스는 해당 대학의 경쟁력만큼 연구 활동을 전폭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이다.

연구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의 자격 요건은 다음 세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첫째, 모체기관 성격과의 유사성 부분이다. 연구도서관협의회 회원도서관들의 연구 활동 지원이라는 공통 특징을 가진 연구중심대학 도서관들간 효과적인 정보자원 교환 활동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회원 기관간 규모의 유사성 부분이다. 연구도서관협의회 회원 대상 매년 조사하는 5개 분류의 22개 항목에서 회원 가입전 3-4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값을 얻어야 한다. 5개 분류는 소장장서, 신규 소장장서, 구독 중인 연속간행물 종수, 도서관 예산, 지원인력을 포함한 사서수이다.

셋째, 연구자원에 대한 국가적(북미) 기여도 부분이다. 해당 대학도서관이 보유한 연구자원이 북미의 연구자원 중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입증해야 한다. 이와 같이 미국 내 대학도서관은 카네기분류의 연구중심대학에 속하더라도 연구도서관협의회 소속 연구도서관이 되기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원칙과 연구도서관협의회 회원표준지수 최소값을 매년 만족시켜야 한다. 즉, 각 대학도서관이 연구도서관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거나 신규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²⁹⁾

29) 한혜영. 전계논문. pp. 29-33.

3.2 외국대학 및 서울대학의 도서관장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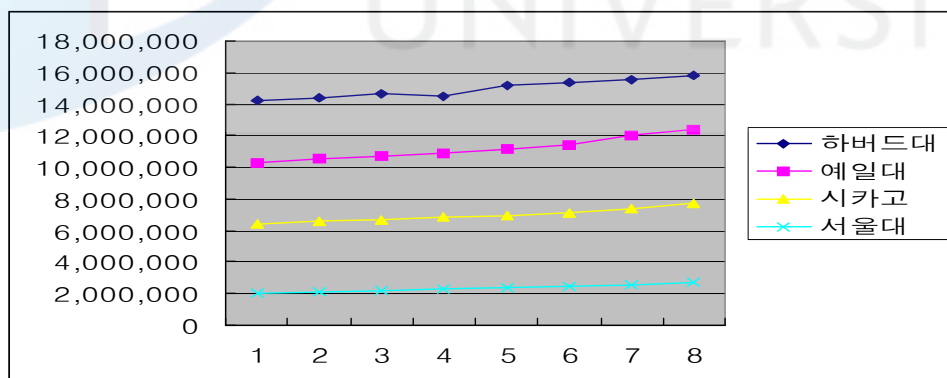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수집·정리·보존·축적하여 교수, 학생, 교내 연구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과 연구 활동이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도서 장서는 매년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외국대학의 장서에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Harvard 대학, Yale대학, Chicago대학 그리고 국내 서울대학교의 1999년부터 2006년까지의 장서수를 비교해 보면 <표 11><그림 1>과 같다.³⁰⁾

<표 11> 외국대학 및 서울대학의 도서관장서

(단위 : 책)

년도	하버드대	예일대	시카고	서울대
1999	14,190,704	10,294,792	6,419,936	2,030,423
2000	14,437,361	10,492,812	6,557,970	2,073,419
2001	14,685,926	10,707,270	6,693,321	2,191,591
2002	14,487,415	10,905,851	6,832,833	2,289,316
2003	15,181,349	11,114,308	6,977,186	2,369,635
2004	15,391,906	11,389,504	7,124,379	2,470,712
2005	15,555,533	12,025,695	7,363,549	2,584,647
2006	15,826,570	12,368,757	7,765,583	2,736,733

<그림 1>외국대학 및 서울대학의 도서관장서 증가



30)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ARL Statistics』 . [cited 2008. 11. 1].
<<http://www.arl.org/stats>>.

3.3 외국대학 및 서울대학의 대학총예산 대비 도서관총예산

도서관 총예산은 도서구입비, 인건비, 기타비용을 포함한 대학에서 도서관에 지원을 하는 총예산을 말하는 것으로 외국의 주요 대학의 총예산대비 도서관 총예산에³¹⁾ 대한 비율을 보면 하버드(Harvard)대학은 3.85%, 예일(Yale)대학은 4.46%, 프린스턴(Princeton)대학은 3.53%로 조사되었다. 국내 대학 중 서울대학교는 대학총예산 대비 도서관 총예산비율이 2.09%로³²⁾ 주요 외국의 대학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표 12참조).

<표 12> 외국대학 및 서울대학의 대학총예산 대비 도서관총예산

대학명	대학 총예산(\$)	도서관 총예산(\$)	대학총예산대비 도서관총예산비율(%)
Harvard	2,757,373,000	105,809,085	3.84
Yale	1,680,000,000	74,938,119	4.46
Princeton	1,109,490,000	39,143,966	3.53
서울대	496,577,710	10,397,050	2.09

*서울대 도서비 환율적용 : 1\$당 1,300으로 환산

31)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08. 『ARL Statistics 2005-2006』 .
[cited 2008. 11. 1]. <<http://www.arl.org/stats>>.

32) 서울대학교. 2008. 『통계연보 2007』 . 서울: 서울대학교.

III. 도서관 자료 활용에 관한 조사

1.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본 연구는 연구중심대학에서 도서관의 역할에 대한 연구와 연구자들의 관련 주제 자료 검색 및 입수 방법 등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자 서울대학교의 석·박사 학위논문 제출자를 대상으로 설문지 분석 방법에 의하여 연구중심대학에서의 도서관 자료 활용 방안을 강구하고자 했다.

조사방법은 2008년도 석·박사 학위 논문 제출자에게 직접 설문 작성을 요청, 수집하였다.

2. 설문지의 문항구성

설문지의 문항은 크게 응답자의 유형분석, 참고자료 선택과정, 자료매체 선호도, 도서관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도 그리고 도서관 전체에 대한 인지도로 나누어서 구성하였으며 설문 응답자가 쉽게 답변할 수 있도록 설문 문항 순서를 배치하였다. (<표 13>참조).

<표 13> 설문지 문항 구성표

범주	문항수
1. 응답자 유형	Q가-나
2. 연구주제관련 자료 입수현황	Q1-6
3. 자료매체 선호도	Q7-17
4. 도서관 홍보 및 교육 인식도	Q18-24
5. 도서관 인지도	Q25-30
총	32 문항

3. 설문자료 분석

3.1 응답자 유형

1) 설문 응답자의 학위구분

설문지 응답자의 대상을 학위별로 살펴보면 석사 88명(66.7%), 박사44명(30.3%) 총132명이다(표 14참조).

<표 14> 설문 응답자의 학위 구분

학위/응답자수	응답자수	응답자 비율
석사	88	66.7%
박사	44	33.3%
계	132	100%

2) 설문 응답자의 전공분야별 구분

전공별 응답자는 인문/사회분야 석사 43명(32.6%), 박사 5명(3.8%), 과학분야 석사22명 (16.7%), 박사 18명 (13.6%), 기술분야 석사 23명(17.4%), 박사 21명(15.9%) 총 132명이다(표 15 참조).

<표 15> 설문 응답자의 전공분야 구분

단위: 응답자 수 (%)

전공/학위	석사	박사	계
인문/사회	43(48.9)	5(11.4)	48(36.4)
과 학	22(25.0)	18(41.0)	40(30.3)
기 술	23(26.1)	21(47.6)	44(33.3)
계	88(100)	44(100)	132(100)

3.2 연구주제 관련 자료입수 현황

1) 자료 검색 및 입수 기간

전체 논문 완성 기간을 100%로 하였을 때 논문의 주제 및 그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고 입수한 기간을 연구자가 “전체 기간 중 몇% 정도로 인지”하는지 조사하였다. 논문 작성 기간이 연구 주제와 연구 방법에 따라 연구 주제 관련 자료의 검색과 입수 기간을 정량화하기가 용이하지 않아서 논문 작성자의 판단을 기준으로 검색 및 입수 기간의 비율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응답자중 석·박사학위 연구자 72명(54.5%)이 전체 논문 완성 기간 중 관련 자료의 검색 및 입수 기간이 “40%이하”였다는 응답을 하였으며 전공분야별로 응답률이 높은 인지도는 인문/사회분야의 경우 21명(43.8%)이 “21-40%”, 과학분야 17명(42.5%) “41-60%”, 기술분야는 18명(40.9%)이 “21-40%”로 인지한다고 응답하여 분야별로 차이가 보였다(표 16 참조).

<표 16> 자료 검색 및 입수 기간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20%이하	9(10.2)	9(20.4)	18(13.6)	72(54.5)
21-40%	34(38.7)	20(45.5)	54(40.9)	
41-60%	31(35.2)	12(27.3)	43(32.6)	60(45.5)
61%이상	14(15.9)	3(6.8)	17(12.9)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20%이하	4(8.3)	5(12.5)	9(20.5)	18(13.6)
21-40%	21(43.8)	15(37.5)	18(40.9)	54(40.9)
41-60%	15(31.2)	17(42.5)	11(25.0)	43(32.6)
61%이상	8(16.7)	3(7.5)	6(13.6)	17(12.9)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미국의 국립과학재단은 “연구 개발자의 전체 연구시간 가운데 기술정보의 입수와 전달에 투입되는 시간이 절반 이상을 차지 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일본 과학기술청의 조사에 따르면 “물리 및 화학 분야에서 연구개발 실패사례 가운데 40-50%는 기술정보의 입수부족이 그 원인”이라고 한다. 또한 한국의 경우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국내 기업 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서 “연구개발에 있어 주요 애로요인의 하나가 유용한 과학기술정보를 확보하지 못하는 것”³³⁾이라고 하였는데 21세기의 우리 대학의 조사 결과 역시 연구기간 중 자료입수에 많은 소요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기간에 따른 자료정보원을 살펴 장서개발의 제안점으로 제시해 보면 <표 15>의 결과를 가지고 연구자가 입수한 관련 자료의 정보원(전자, 인쇄)으로(표 27참조)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논문작성기간 중 관련 자료의 검색 및 입수 기간이 적게 인식된 “40%이하”의 연구자중 65%가 학술지를 자료정보원으로, 인지 기간이 “40%이상”으로 응답한 연구자는 색인/초록/통계 자료정보원 10.8%, 학위논문이 22.5%로 주제 관련 자료의 입수 자료 정보원으로 분석되어 도서관은 연구자의 연구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자료의 제공 서비스 중에서 색인/초록/통계 DB제공 및 타 대학과의 학위논문에 제공에 관련 자료연계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여야 하겠다(표 17 참조).

<표 17> 자료 입수기간 및 자료정보원

단위(%)

구분	40%이하	40%이상	계
학술지	66.0	50	58.7
색인/초록/통계	6.3	10.8	8.3
학위논문	9.7	22.5	15.5
연구보고서	5.5	6.7	6.1
단행본	12.5	10.0	11.4
계	100	100	100

33) 한겨레신문. 1998. 2. 16. 국가기술혁신시스템과 정보화.

2) 대학도서관에서 입수한 주제 관련 자료

연구물 작성에 필요한 주제 관련 전체 입수 자료를 “100%”로 인지하였을 때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의 인지도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49명(55.6%), 박사학위 연구자 29명(65.9%)의 응답자가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관련 자료를 입수한 인지도가 전체 자료 중 “40%이하” 하였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분야 22명(45.8%), 과학분야 25명(62.5), 기술분야 31명(70.5%)이 응답을 하였다(표 18 참조).

연구자에게 필요한 전체 자료를 도서관에서 제공할 수는 없으나,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검색하여 정보를 얻고 도서관을 통하여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연구자가 인지하도록 도서관은 그 역할의 개선점을 찾는데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 최근에 들어 도서관들은 이러한 개선점의 노력으로 Library 2.0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있다. Library 2.0의 정의를 Casey(2006)는 Library 2.0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것으로 기존 이용자는 유지하고 현재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으며, Brevik(2006)은 도서관 이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서비스에 접근하는 시점과 방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도서관 서비스를 자연스럽게 발전시키는 것 이라고 하였다.

<표 18> 대학도서관에서 입수한 자료

단위: 응답자 수(%)

구분	석사		박사		계	
20%이하	31(35.2)	49 (55.6)	23(52.3)	29 (65.9)	54(40.9)	78(59.1)
21~40%	18(20.4)		6(13.6)		24(18.2)	
41~60%	10(7.6)	39 (44.4)	8(18.2)	15 (34.1)	18(13.6)	54(40.9)
61~80%	21(15.9)		1(2.3)		22(16.7)	
81%이상	8(6.1)		6(13.6)		14(10.6)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20%이하	12 (25.0)	22 (45.8)	16 (40.0)	25 (62.5)	26 (59.1)	31 (70.5)	54 (40.9)
21-40%	10 (20.8)		9 (22.5)		5 (11.4)		24 (18.2)
41-60%	7 (14.6)	26 (54.2)	6 (15.0)	15 (37.5)	5 (11.4)	19 (29.6)	18 (13.6)
61-80%	13 (27.1)		4 (10.0)		5 (11.4)		22 (16.7)
81%이상	6 (12.5)		5 (12.5)		3 (6.8)		14 (10.6)
	계		48(100)		40(100)		44(100)



3) 대학도서관 입수 자료 및 자료 이용기관

위의 <표 17>의 결과를 가지고 자료를 얻기 위하여 자료를 검색하고 입수하기 위하여 이용기관(표 19 참조)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대학도서관에 “40%이하”의 자료를 입수하였다고 인정한 연구자들은 도서관 보다 학술포털, 검색엔진을 통한 자료 검색 및 입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9> 대학도서관 입수자료 및 자료이용기관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대학도서관 입수 자료		계
	40%이하	40%이상	
도서관	14(17.9)	35(64.8)	49(37.1)
학술포털 (국회, 국립, KERIS 등)	28(35.9)	11(20.4)	39(29.5)
검색엔진 (Google, Naver 등)	27(34.7)	8(14.8)	35(26.5)
개인소장 정보, 기타	9(11.5)	0	9(6.9)
계	78(100)	54(100)	132(100)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입수한 자료의 비율 40%이하의 응답자중 이용기관 응답률이 높았던 학술포털, 검색엔진의 자료정보원에 대한 응답률을 분석해 보았다. 비교표를 보면 도서관은 색인/초록/통계, 학위논문 검색 및 자료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러한 개선은 연구자에게 도서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가 될 것이다(표 20 참조).

<표 20> 대학도서관 입수자료 및 자료정보원

구분	대학도서관 입수 자료 40%이하	
	학술포털	검색엔진
학술지	67.9%	64.8%
색인/초록/통계	12.5%	11.1%
학위논문	3.6%	11.1%
연구보고서	8.9%	5.6%
단행본	7.1%	7.4%
계	28(100)	27(100)

4) 자료의 검색 및 입수를 위해 이용한 기관

주제 관련 자료를 검색 및 입수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석사학위 연구자 36명(40.9%), 박사학위 연구자 13명(29.5%) 총 49명(37.1)이 도서관으로 응답을 하였다.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KERIS 등 학술포털의 이용 또한 석사학위 연구자 23명(26.1%), 박사학위 연구자 16명(36.5%) 총 39명(29.5%)으로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Google, Naver 등 일반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관련 자료를 찾는 연구자 또한 석사학위 연구자 22명(16.7%), 박사학위 연구자 13명(29.5%), 총 35명(26.5%)로 응답하였다. 전공분야별 응답에서는 인문/사회분야에서는 도서관의 의존도가 29명(60.4%)으로 높았고, 과학분야는 13명(32.5%)이 학술포털, 기술분야는 일반 검색엔진을 이용하여 자료를 검색하는 응답자가 18명(40.9%)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응답자를 보면 각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는 응답률을 보였는데, 연구자들이 관련 자료를 도서관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를 검색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21 참조)

<표 21> 자료의 검색 및 입수를 위해 이용한 기관

단위: 응답자 수(%)

구분	석사	박사	계
도서관	36(40.9)	13(29.5)	49(37.1)
학술포털(국회, 국립, KERIS 등)	23(26.1)	16(36.5)	39(29.5)
검색엔진(Google, Naver 등)	22(16.7)	13(29.5)	35(26.5)
개인소장 정보, 기타	7(5.3)	2(4.5)	9(6.9)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도서관	29(60.4)	14(35.0)	5(11.4)	48(37.1)
학술포털 (국회, 국립, KERIS 등)	11(22.9)	13(32.5)	16(36.3)	40(29.5)
검색엔진 (Google, Naver 등)	5(10.4)	11(27.5)	18(40.9)	34(26.5)
개인소장정보, 기타	3(6.3)	2(5)	5(11.4)	10(6.9)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Google, Naver의 일반검색엔진의 이용이 높은 것을 도서관에서는 주의 깊게 관찰하여야 할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전환이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과학·기술·의학 분야(STM)에서 정보가 즉각 활용되지 않을 경우 정보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출간과정이 신속하고 정보의 유통과정이 경제적인 오픈액세스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³⁴⁾ 현재의 도서관 홈페이지는 자관에서 타 기관으로 연계시키는 단순한 링크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에서 벗어나 도서관 자관 홈페이지 내에서 검색 및 검색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외부의 다양한 협력 기관과의 연계 방법을 개선, 연구자로 하여금 도서관에 대한 검색의 의존도와 인지도를 높여야 하겠다.



34) 조수련. 2005. 「오픈액세스 자원의 논문 및 저자 연구업적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 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p. 1.

5) 외국자료(언어구분) 참조현황

연구자에게는 연구결과물에 따라서 연구대상에 대한 국제적 우선 순위 취득이 중요한 부분이기때문에 선진 외국의 관련 연구물 자료 및 최신 정보 자료의 참조사항이 필수일 것이다. 연구를 위하여 입수한 자료 중 언어별로 자료의 입수를 조사하였다. 즉 국내자료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외국자료라 칭하였으며 자료의 정량화를 할 수 없었기에 응답자의 인지도에 따른 설문을 하였다. 주제 관련 입수 자료에 석사학위 연구자 30명(34.1%) 박사학위 연구자 3명(6.8%)이 전체 입수한 관련 자료 중 외국자료가 “50이하”라는 응답을 하였다.. 가장 많은 응답은 석사학위 연구자는 외국자료의 참조비율이 “80-90%” 및 “50%이하”이라는 응답에 각 30명(34.1%)이 응답 하였고, 박사학위 연구자는 “91-99%”에 16명(36.4%), “80-90%”에 14명(31.8%)순으로 응답하였다. 전공분야별로는 인문/사회분야 22명(45.8%)이 “50%이하”에, “80-90%”에는 과학분야 14명(35.0%), 기술분야 17명(38.6%)이 응답하여 각 분야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22 참조).

<표 22> 외국자료(언어구분) 참조현황

단위: 응답자 수(%)

구분	석사	박사	계
50%이하	30(34.1)	3(6.8)	33(25.0)
51-79%	14(15.9)	2(4.5)	16(12.1)
80-90%	30(34.1)	14(31.8)	44(33.3)
91-99%	6(6.8)	16(36.4)	22(16.7)
100%	8(9.1)	9(20.5)	17(12.9)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50%이하	22(45.8)	5(12.5)	6(13.6)	33(25.0)
51-79%	8(16.7)	4(10.0)	4(9.1)	16(12.1)
80-90%	13(27.1)	14(35.0)	17(38.6)	44(33.3)
91-99%	3(6.2)	6(15.0)	13(29.5)	22(16.7)
100%	2(4.2)	11(27.5)	4(9.1)	17(12.9)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6) 도서관 방문 횟수

연구자가 주제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하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횟수를 조사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48명(36.4%), 박사학위 연구자 26명(19.7%) 총 74명(56.1%)의 연구자가 연구논문 작성기간 중 자료를 찾기 위하여 도서관을 방문한 횟수를 “1-5회”라고 응답하였으며, “6-10회”의 응답은 석사학위 연구자 19명(14.4%), 박사학위 연구자 5명(3.8%) 총 24명(18.2%)의 연구자가 응답하였다. 또한 “11-15회”응답은 석사학위 연구자 2명(1.5%), 박사학위 연구자 6명(4.5%), 총 8명(6.0%)이 응답하였다. “수시로” 방문한다고 응답한 연구자는 석사학위 연구자 19명(14.4%), 박사학위 연구자 7명(5.3%) 총 26명(19.7%)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수시로” 방문이 석사학위 연구자 17명(35.4%)이 응답하여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1-5회” 방문 13명(27.1%), “6-10회” 방문 12명(25.0%), “11-15회” 1명(2.1%)이 응답을 하였다. 과학 분야는 석사학위 연구자 17명(42.5%)이 응답한 “1-5회” 방문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기술 분야는 석사학위 연구자 18명(40.9%), 박사학위 연구자 11명(25.0%)이 “1-5”회 방문에 가장 많이 응답을 하였다(표 23 참조).

<표 23> 도서관 방문 횟수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소 계		총 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1-5회	13 (27.1)	3 (6.2)	17 (42.5)	12 (30.0)	18 (40.9)	11 (25.0)	48 (36.4)	26 (19.7)	74(56.1)
6-10회	12 (25.0)	1 (2.1)	4 (10.0)	2 (5.0)	3 (6.8)	2 (4.5)	19 (14.4)	5 (3.8)	24(18.2)
11-15회	1 (2.1)	1 (2.1)		2 (5.0)	1 (2.3)	3 (6.8)	2 (1.5)	6 (4.5)	8(6.0)
수시로	17 (35.4)		1 (2.5)	2 (5.0)	1 (2.3)	5 (11.4)	19 (14.4)	7 (5.3)	26(19.7)
소 계	43 (89.6)	5 (10.4)	22 (55.0)	18 (45.0)	23 (52.3)	21 (47.7)	88 (66.7)	44 (33.3)	132(100)
총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7)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횟수

연구 주제 관련 자료를 찾기 위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검색한 횟수에 대한 조사하였다. 연구자 석사학위 연구자 26명(19.8%), 박사학위 연구자 13명(9.8%)총 39명(29.5%)의 연구자가 연구논문 작성기간 중 자료를 찾기 위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방문한 횟수를 “1-10회”라고 응답하였으며, “11-20회”의 응답은 석사학위 연구자 10명(7.6%), 박사학위 연구자 7명(5.3%) 총 17명(12.9%)의 연구자가 응답하였다. 또한 “21-30회”응답은 석사학위 연구자 18명(13.6%), 박사학위 연구자 5명(3.8%), 총 23명(17.4%)이 응답하였다. “수시로” 방문한다고 응답한 연구자는 석사학위 연구자 34명(25.7%), 박사학위 연구자 19명(14.4%) 총 53명(40.2%)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공별로는 인문/사회분야에서는 “수시로” 방문이 석사학위 연구자 22명(45.8%)이 응답하여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과학 분야는 석사학위 연구자 9명(22.5%)이 응답한 “1-10회” 방문이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기술 분야는 석사학위 연구자 10명(22.7%)의 응답자가 “1-10회”에, 박사학위 연구자는 9명(20.5%)이 “수시로” 검색한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표 24 참조)

<표 24> 도서관 홈페이지 검색 횟수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소 계		총 계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석사	박사	
1-10회	7 (14.6)		9 (22.5)	5 (12.5)	10 (22.7)	8 (18.1)	26 (19.8)	13 (9.8)	39(29.5)
11-20회	5 (10.4)	2 (4.2)	3 (7.5)	5 (12.5)	2 (4.5)		10 (7.6)	7 (5.3)	17(12.9)
21-30회	9 (18.8)		4 (10.0)	1 (2.5)	5 (11.4)	4 (9.1)	18 (13.6)	5 (3.8)	23(17.4)
수시로	22 (45.8)	3 (6.2)	6 (15.0)	7 (17.5)	6 (13.6)	9 (20.5)	34 (25.7)	19 (14.4)	53(40.2)
소 계	43 (89.6)	5 (10.4)	22 (55.0)	19 (45.0)	23 (52.3)	21 (47.7)	88 (66.7)	44 (33.3)	132(100)
총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3.3 자료매체 선호

1) 용어 정의

자료와 관련된 용어는 문헌정보학에서 여러 가지 용어가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다. 정보, 문헌, 매체, 자료 등이 그것이다.

(1) 정보란,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지식과 통용어로 “알려주는 것을 통해 받거나 획득된 것”이다.³⁵⁾

(2) 문헌(document)이란, ‘정보’를 담고 있는 용기라는 의미로 웹스터 사전에서는 문헌의 의미를

① 한 건의 정보

② 정보를 전달하는 책, 보고서, 편지와 같은 저작물

③ 전통적인 마크나 기호를 수단으로 인간의 생각을 표현해 놓은 자료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⁶⁾

(3) 매체란, ALA(American Library Association) 용어사전에는 “정보의 매개자로서 역할을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모든 형태의 경로의 자료(materials)”라고 정의하고 있다.³⁷⁾ 또한, Richard Fothergill은 “매체(media)는 메시지(message)의 전송에 사용되는 경로이며, 그 경로에는 종이나 스크린에 기록될 수 있는 인쇄된 메시지, 그래픽, 사진과 투사되는 스틸사진, 라디오 생방송이나 음반에 녹음된 사운드, 텔레비전이나 필름에 기록되는 동화상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³⁸⁾

이들이 정의하고 있는 매체란 단순한 메시지의 전송이나 복잡한 정보의 전달을 포함하여 모든 의사소통의 매개가 되는 경로나 자료 등을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고 특히 문헌정보학에서는 그동안 도서관에서 소장

35)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information"

36) Webster's Third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document"

37) ALA.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Chicago : ALA. p. 142.

38) Richard Fothergill. 1990. *Non-book materials in libraries : a practical guide*. 3rd ed., London : Clive Bingley. p. 3.

하는 시청각 매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러나, 전자매체가 등장하고 전자매체가 의사소통이나 일상생활에 있어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매체라는 개념 자체가 전자매체로 인하여 특히 부각되고 있는 현대에 매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문헌정보학에서도 필요하게 되었다.

(4) 자료(materials)란, 문헌정보학용어사전에 의하면 도서관자료(library materials)로 표현하고 이를 "도서관이 수집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자료의 총칭"으로 설명하고 있다.³⁹⁾ 즉 문헌정보학에서 사용되는 자료란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하는 것으로 문헌이라고도 한다"로 정의할 수 있다. 자료에는 이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매체에 대한 개념은 전자매체를 포함하여 확대되었으며, 문헌정보학에서 역시 자료에 대한 개념을 확대시켰다.⁴⁰⁾

2)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환경의 변화 즉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교육 분야에도 영향을 주었다. 교과서, 교사의 판서와 설명이 주가 되었던 전통적인 교실 환경에 ICT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교육정보화는 국가정책 실시와 관련 산업 발전으로 학교현장에 급속히 확산되었고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많은 관련자들은 교육정화를 통해서 교수학습방법의 혁신, 업무의 혁신, 궁극적으로 학생들의 향상된 학업성취를 기대하였다.⁴¹⁾

이러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한 연구자들은 도서관 자료매체 선호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에 대한 연구자의 연구 주제 관련 자료 입수 과정을 설문을 통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39) 사공철 외편.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p. 86.

40) 김현자. 2008. 「편목규칙에 있어서 자료표시의 변천고」.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pp. 7-10.

41) 김현진, 임진호. 2006. 『교육정보화의 효과 : 학교 교수학습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p. 1.

3) 연구 주제 관련 매체별 입수 자료

연구 주제 관련 자료의 입수 매체 과정을 조사하였다. 연구를 위해 입수한 연구 주제 관련 전체 자료 중 전자매체를 통하여 입수한 자료가 석사학위 연구자 31명(35.2%), 박사학위 연구자 5명(11.4%) 총 36명(27.3%)의 응답자가 “50%이하”라는 응답을 하였다. “51-90%”의 자료를 전자매체를 통하여 입수한 분포는 석사학위 연구자 36명(40.9%), 박사학위 연구자 18명(41.0%) 총 54명(40.9%)이며, 석사학위 연구자 21명(23.7%), 박사학위 연구자 21명(47.6%)의 응답자가 “99-100%”의 자료를 전자매체를 통하여 입수하였다고 하였다. 이중에서 연구에 관련된 전체 자료를 전자 매체를 통하여만 입수하였다는 응답자도 11명으로 전체의 8.3%나 된다는 사실은 연구 중심대학 도서관에서 주의 깊게 관찰할 사항으로 이는 자료 및 학문분야의 특성에 따른 차이점도 있겠지만 정보의 생산이 전자매체로 이전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표 25 참조).

<표 25> 전자매체를 통한 입수 자료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50%이하	31(35.2)		5(11.4)		36(27.3)	
51-80%	17(19.3)	36 (40.9)	5(11.4)	18 (41.0)	22(16.7)	54 (40.9)
81-90%	19(21.6)		13(29.5)		32(24.2)	
91-99%	15(17.1)	21 (23.7)	16(36.4)	21 (47.6)	31(23.5)	42 (31.8)
100%	6(6.8)		5(11.4)		11(8.3)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50%이하	21(43.8)	8(20.0)	7(15.9)	36(27.3)
51-80%	12(25.0)	7(17.5)	3(6.8)	22(16.7)
81-90%	10(20.8)	10(25.0)	12(27.3)	32(24.2)
91-99%	4(8.3)	11(27.5)	16(36.4)	31(23.5)
100%	1(2.1)	4(10.0)	6(13.6)	11(8.3)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4) 전자자료 이용(검색)장소

연구자가 주제 관련 자료를 이용(검색)하는 장소는 석·박사학위 연구자 모두 소속대학(연구실)이라 응답한 연구자가 63명(47.7%), 기타 교내 검색실이 9명(6.9%)이라 하였다. 전공별로 과학분야 연구자 23명(57.5%), 기술분야 연구자 25명(56.8%) 총 63명(47.7%)의 응답자가 소속대학을 선택하였으며, 도서관에서의 이용(검색)활동은 전체 응답자의 25명(18.9%)만이 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35명(26.5%)의 응답자가 교내 캠퍼스망이 아닌 교외/기타를 선택하였다. 이는 전자매체에 대한 검색의 장점의 하나인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검증한 응답으로 도서관 이용통계의 방문자수에 대한 인식도가 낮아짐을 알 수 있으며, 전자자료 이용통계의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표 26 참조).

<표 26> 전자자료 이용(검색) 장소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도서관	19(21.6)	6(13.6)	25(18.9)
소속대학(연구실)	44(50.0)	19(43.2)	63(47.7)
기타 교내 검색실	4(4.55)	5(11.4)	9(6.9)
교외/기타	21(23.9)	14(23.9)	35(26.5)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도서관	10(20.8)	8(20.0)	7(15.9)	25(18.9)
소속대학	15(32.3)	23(57.5)	25(56.8)	63(47.7)
기타 교내 검색실	4(8.33)	3(7.5)	2(4.55)	9(6.9)
교외/기타	19(39.6)	6(15.0)	10(22.7)	35(26.5)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5) 전자자료 구독중단 및 사유 인지

연구 주제 관련 제공되던 전자 자료가 일시적인 장애 오류가 아닌 도서관의 예산부족, 이용률 저조 등 구독 중단되어 연구에 참조 할 수 없었던 경험이 있는지 조사 하였다. 전체 응답자중 석사학위 연구자 21명(23.8%), 박사학위 연구자 18명(40.9%) 총39명(29.5)이 구독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전공분야별로 전자 자료의 구독 중단 경험은 과학 분야의 14명(35.0%)이 응답하여 다른 분야보다 많은 전자 자료의 구독 중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표 27 참조).

<표 27> 전자자료 구독 중단 경험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있다	21(23.8)	18(40.9)	39(29.5)
없다	67(76.2)	26(59.1)	93(70.5)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있다	12(25.0)	14(35.0)	13(29.5)	39(29.5)
없다	36(75.0)	26(65.0)	31(70.5)	93(70.5)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위 <표 27>의 구독 중단 경험이 있는 응답자 39명에게 구독 중단 사유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39명 응답자중 11명(28.2%)만이 전자 자료의 구독 중단 사유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표 28 참조).

<표 28> 구독 중단 사유 인지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알고 있다	8(38.1)	3(16.7)	11(28.2)
모르고 있다	13(61.9)	15(83.3)	28(71.8)
계	21(100)	18(100)	39(100)

6) 구독 인쇄 자료를 전자 자료로 전환

도서관에서 현재 제공하는 인쇄 자료를 전자 자료로 전환해서 구독 하는 것에 대하여 연구자에게 조사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42명(47.7%), 박사학위 연구자 27명(61.4%) 총 69명(52.3%)의 응답자가 현재 구독하고 있는 인쇄 자료를 전자 자료로 전환하여 구독하는데 “찬성”의 응답을 하였으며 전공별 응답에서는 과학 분야의 응답자가 다른 분야 보다 높게 응답하였으나 전공분야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응답의 결과는 “전자 자료로의 전환으로 찬성”이 반대의 응답자의 4.6%의 차이만을 보이고 있다 (표 29 참조).

<표 29> 구독 인쇄 자료를 전자 자료로 전환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찬성	42(47.7)	27(61.4)	69(52.3)
반대	46(52.3)	17(38.6)	63(47.7)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찬성	26(54.2)	23(57.5)	20(45.5)	69(52.3)
반대	22(45.8)	17(42.5)	24(54.5)	63(47.7)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7) 신규자료 구독 시 자료매체 선호

기존 구독하던 자료가 아닌 신규자료 구독 선정 시 전자 자료가 일반화 되므로 인쇄 자료를 줄이고 전자 자료의 구독을 늘리는 것에 대하여 학위 연구자에게 조사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34명(38.6%), 박사학위 연구자 12명(27.3%) 전체 응답자 46명(34.8%)의 응답자가 신규 자료 구독 시 전자 자료의 구독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표 30 참조).

<표 30> 신규자료 구독 시 자료매체 선호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매우 찬성한다	7(8.0)	54 (61.4)	5(11.4)	32 (72.7)	12(9.2)	86 (65.2)
찬성한다	21(23.9)		9(20.5)		30(22.7)	
보통이다	26(29.5)		18(40.8)		44(33.3)	
찬성하지 않는다	18(20.5)	34 (38.6)	5(11.4)	12 (27.3)	23(17.4)	46 (34.8)
매우 찬성하지 않는다	16(18.1)		7(15.9)		23(17.4)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매우 찬성한다	6(12.5)	31 (64.6)	4(10.0)	26 (65.0)	2(4.5)	29 (65.9)	12(9.2)
찬성한다	9(18.8)		9(22.5)		12(27.3)		30(22.7)
보통이다	16(33.3)		13(32.5)		15(34.1)		44(33.3)
찬성하지 않는다	7(14.6)	17 (35.4)	8(20.0)	14 (35.0)	8(18.2)	15 (34.1)	23(17.4)
매우 찬성하지 않는다	10(20.8)		6(15.0)		7(15.9)		23(17.4)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8) 전자자료 자료정보원

연구 관련 주제의 전자 자료 정보원 중 가장 많이 이용 및 참조한 자료 정보원을 조사하였다. 학위별 응답에서는 학술지가 85명(64.4%)의 높은 이용 및 참조 정보원으로 나타났으며, 석사학위 연구자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이 17명(19.3%), 색인/초록/통계자료 13명(14.8%), 연구보고서 6명(6.8%), 단행본 4명(4.5%)의 자료정보원을 이용 및 참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박사학위 연구자의 경우에는 37명(84.1%)의 응답자가 학술지를 선택하여 연구에 학술지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공분야별로는 학술지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과학 분야에서는 색인/초록/통계자료가 9명(22.5%)으로 다른 분야에 비하여 높게 응답이 되었다 (표 31 참조).

<표 31> 전자자료 자료정보원 분포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학술지	48(54.5)	37(84.1)	85(64.4)
색인/초록/통계자료	13(14.8)	1(2.3)	14(10.5)
학위논문	17(19.3)	3(6.8)	20(15.2)
연구보고서	6(6.8)	2(4.5)	8(6.1)
단행본	4(4.5)	1(2.3)	5(3.8)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학술지	30(62.5)	24(60.0)	31(70.5)	85(64.4)
색인/초록/통계자료	1(2.1)	9(22.5)	4(9.09)	14(10.5)
학위논문	9(18.8)	3(7.5)	8(18.2)	20(15.2)
연구보고서	6(12.5)	1(2.5)	1(2.27)	8(6.1)
단행본	2(4.1)	3(7.5)	0	5(3.8)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9) 인쇄자료 자료정보원

인쇄 자료의 정보원 중 연구 주제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이용 및 참조한 자료정보원을 조사하였다. 학위별 전체응답자에서는 70명(53.0%)이 학술지를 가장 많이 참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사학위 연구자의 경우에는 학위논문 19명(21.6%), 단행본 16명(18.2%), 색인/초록/통계자료 6명(6.8%), 연구보고서 6명(6.8%)의 순으로 인쇄 자료 정보원을 참조한 것을 알 수 있었고 박사학위 연구자의 경우에는 학위논문이 2명(4.5%)으로 석사학위 연구자들보다 많이 낮았으며 단행본이 9명(20.6%)으로 석사학위 연구자 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분야, 기술분야는 단행본, 과학기술분야는 학위논문을 학술지 다음으로 이용, 참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표 32> 인쇄자료 자료정보원 분포

단위: 응답자 수(%)

구분	석사	박사	계
학술지	41(46.6)	29(65.9)	70(53.0)
색인/초록/통계자료	6(6.8)	2(4.5)	8(6.1)
학위논문	19(21.6)	2(4.5)	21(15.9)
연구보고서	6(6.8)	2(4.5)	8(6.1)
단행본	16(18.2)	9(20.6)	25(18.9)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학술지	22(45.8)	24(60.0)	24(54.5)	70(53.0)
색인/초록/통계자료	1(2.1)	2(5.0)	5(11.4)	8(6.1)
학위논문	7(14.6)	8(20.0)	6(13.6)	21(15.9)
연구보고서	5(10.4)	2(5.0)	1(2.3)	8(6.1)
단행본	13(27.1)	4(10.0)	8(18.2)	25(18.9)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10) 학위별 연구자 자료정보원

연구자가 이용 및 참조한 전체 자료정보원을 학위별로 비교하여 살펴보면 석사학위 연구자는 학술지 7.9%, 색인/초록/통계 8%가 인쇄 자료보다 전자 자료의 이용 및 참조가 많았고, 학위논문 2.3%, 단행본 13.7%로는 인쇄 자료의 이용 및 참조가 높았다. 박사학위 연구자는 학술지 18.2%, 학위논문 2.3%로 전자 자료의 이용이 많았으며, 색인/초록/통계 2.2%, 단행본 18.3%가 인쇄 자료의 이용 및 참조가 높았다. 석·박사학위 연구자 전체를 비교하면 학술지, 단행본의 이용은 모두 전자 자료가 많았으나 색인/초록/통계 자료, 연구보고서 자료는 학위별로 차이를 나타냈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참조).

<표 33> 학위별 연구자 자료정보원 비교

단위: 응답자 수(%)

구분	석사		자료별이용비교	
	인쇄자료	전자자료	인쇄자료	전자자료
학술지	41(46.6)	48(54.5)		7.9%
색인/초록/통계자료	6(6.8)	13(14.8)		8%
학위논문	19(21.6)	17(19.3)	2.3%	
연구보고서	6(6.8)	6(6.8)		
단행본	16(18.2)	4(4.5)	13.7%	
계	88(100)	88(100)		

구분	박사		자료별이용비교	
	인쇄자료	전자자료	인쇄자료	전자자료
학술지	29(65.9)	37(84.1)		18.2%
색인/초록/통계자료	2(4.5)	1(2.3)	2.2%	
학위논문	2(4.5)	3(6.8)		2.3%
연구보고서	2(4.5)	2(4.5)		
단행본	9(20.6)	1(2.3)	18.3%	
계	44(100)	44(100)		

11) 전공별 연구자 자료정보원

전공별로 연구자의 이용 및 참고한 자료정보원을 비교하여 살펴보면 인문/사회 분야 연구자의 응답에는 학술지 16.7%, 학위논문 4.2%, 연구보고서 2.1%의 전자 자료 이용이 많았으며, 단행본은 인쇄 자료의 이용이 23%나 높았다. 과학분야 연구자는 색인/초록/통계 자료에서 17.5%의 전자 자료 이용이 많았고, 학위논문 12.5%, 연구보고서 2.5%, 단행본 2.5%가 인쇄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기술분야에서는 학술지가 16.0%, 학위논문 4.6%가 인쇄자료 보다 전자자료 이용이 많았으며, 색인/초록 /통계자료 2.4%, 단행본 18.2%가 인쇄 자료 이용이 전자자료 이용보다 많았다고 응답 하였다(표 34 참조).

<표 34> 전공별 연구자 자료정보원 비교

단위: 응답자 수(%)

구분	인문/사회분야		자료별이용비교	
	인쇄자료	전자자료	인쇄자료	전자자료
학술지	22(45.8)	30(62.5)		16.7%
색인/초록/통계자료	1(2.1)	1(2.1)		
학위논문	7(14.6)	9(18.8)		4.2%
연구보고서	5(10.4)	6(12.5)		2.1%
단행본	13(27.1)	2(4.1)	23.0%	
계	48(100)	48(100)		

구분	과학분야		자료별이용비교	
	인쇄자료	전자자료	인쇄자료	전자자료
학술지	24(60.0)	24(60.0)		
색인/초록/통계자료	2(5.0)	9(22.5)		17.5%
학위논문	8(20.0)	3(7.5)	12.5%	
연구보고서	2(5.0)	1(2.5)	2.5%	
단행본	4(10.0)	3(7.5)	2.5%	
계	48(100)	40(100)		

구분	기술분야		자료별 이용비교	
	인쇄자료	전자자료	인쇄자료	전자자료
학술지	24(54.5)	31(70.5)		16.0%
색인/초록/통계자료	5(11.4)	4(9.09)	2.4%	
학위논문	6(13.6)	8(18.2)		4.6%
연구보고서	1(2.3)	1(2.27)		
단행본	8(18.2)	0	18.2%	
계	44(100)	44(100)		



12) 학위별 연구자 자료매체 선호

연구 주제 관련 자료를 검색하고 입수한 자료매체에 대한 질문이 아닌 학위 연구자의 자료매체에 대한 선호를 조사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50명(56.8%), 박사학위 연구자 30명(68.2%) 총 응답자중 80명(60.1%)이 인쇄자료 보다 “전자 자료를 더 선호” 한다는 응답을 하였다(표 35 참조).

<표 35> 학위별 연구자 자료매체 선호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전자자료를 더 선호한다	50(56.8)	30(68.2)	80(60.1)
그렇지 않다	38(43.2)	14(31.8)	52(39.4)
계	88(100)	44(100)	132(100)

위 <표 35> 전자매체 선호도 조사에서 “전자매체 자료를 더 선호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52명에게 그 이유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28명(53.8%)이 “구독하고 있는 자료가 전자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라는 응답을 하였다. 이는 전자 자료로 제공이 된다면 인쇄 자료보다는 전자 자료를 선택 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표 36 참조).

<표 36> 인쇄자료 선호 이유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전자 자료의 교내접속이 제한적이라서 불편하다	13(34.2)	2(14.3)	15(28.8)
구독하고 있는 인쇄 자료가 전자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17(44.7)	11(78.6)	28(53.8)
전자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6(15.8)	0	6(11.6)
전자 자료의 내용을 신뢰할 수가 없다.	2(5.3)	1(7.1)	3(5.8)
계	38(100)	14(100)	5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전자 자료의 교내접속이 제한적 이라서 불편하다	8(29.6)	4(28.6)	3(27.3)	15(28.8)
구독하고 있는 인쇄 자료가 전자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13(48.1)	8(57.1)	7(63.6)	28(53.8)
전자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4(14.8)	2(14.3)	0	6(11.6)
전자 자료의 내용을 신뢰할 수가 없다	2(7.41)	0	1(9.1)	3(5.8)
계	27(100)	14(100)	11(100)	52(100)

전공분야별에서는 인문/사회분야, 과학기술분야의 “전자 자료를 검색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라고 응답한 연구자가 각 14.8%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도서관 자료의 이용 방법 교육 및 안내를 좀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도서관의 활용과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3.4 도서관 홍보 및 교육 인지

도서관 이용자교육이란 용어는 1883년 콜롬비아대학교 총장이 처음 사용하였으며, 한국은 1970년대부터 도서관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문헌정보학 용어사전에 의하면 "이용자교육(user education)은 도서관 서비스, 시설, 조직, 자료 및 자료검색 방법에 대하여 이용자를 교육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하였다.⁴²⁾ 이용자교육의 다양한 명칭들은 이용지도의 포괄적 개념으로 쓰이거나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교육의 내용과 수준에 따라 구분되기도 한다.⁴³⁾

대학도서관은 그동안 모체기관인 대학의 교육 목표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의와 연구를 지원하면서 학생들의 학습과 인간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왔다. 이러한 대학도서관의 기본 목적에는 변함이 없으나, 전자정보 통신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는 교육의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대학도서관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의 변화와 함께 인터넷의 영향으로 도서관 환경은 더욱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 도서관의 기능은 무엇보다도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인 이용자 교육이 더욱 강조된다.⁴⁴⁾

서울대학은 매 학기 "도서관정보검색"의 강좌를 열어 학생들의 도서관에 대한 일반지식과 정보요구에 따른 적절한 정보원을 탐색,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 있으며, 도서관에서도 DB교육 및 기타 이용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도서관 관련 소식에 대하여 수시로 메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러한 도서관의 노력이 연구자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을 하였다.

42) 사공철 외편. 전게서. p. 282.

43) 박준식. 1998. 『정보서비스론』. 대구: 계명대학교출판부. p. 339.

44) 정진식 외. 2006.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p. 264.

1) 도서관 홍보 및 이용교육

도서관에서는 연구자를 위해 “도서관의 홍보와 이용 교육”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연구자의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총 응답자중 104명(78.8%)의 연구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며 석사학위 연구자 보다 박사학위 연구자의 응답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공분야로 살펴보면 인문사회분야 7명(14.6%), 과학분야 10명(25.0%), 기술분야 11명(25.0%) 총 응답자 28명(21.2%)이 도서관에서의 교육이 충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의견에 응답을 하였다. 도서관은 이러한 “불만족”의 응답자를 줄이기 위한 도서관 교육과 홍보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표 37 참조).

<표 37> 도서관 홍보 및 이용교육

단위: 응답자 수 (%)

구분/학위별	석사		박사		계	
매우 그렇다	9(10.2)	68 (74.2)	2(4.6)	36 (81.8)	11(8.3)	104 (78.8)
그렇다	22(22.0)		17(38.6)		39(29.6)	
보통이다	37(42.0)		17(38.6)		54(40.9)	
그렇지 않다	17(19.3)	20 (22.7)	8(18.2)	8 (18.2)	25(18.9)	28 (21.2)
매우 그렇지 않다	3(3.4)		0		3(2.3)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전공별	인문/사회		과학분야		기술분야		계
매우 그렇다	5(10.4)	41 (85.7)	1(2.5)	30 (75.0)	5(11.4)	33 (75.0)	11(8.3)
그렇다	13(27.4)		15(37.5)		11(25.0)		39(29.6)
보통이다	23(47.9)		14(35.0)		17(38.6)		54(40.9)
그렇지 않다	6(12.5)	7 (14.6)	10(25.0)	10 (25.0)	9(20.5)	11 (25.0)	25(18.9)
매우 그렇지 않다	1(2.1)		0		2(4.5)		3(2.3)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2) 메일링 서비스

도서관에서는 메일링 서비스를 통하여 연구자에게 “DB안내 및 기타 도서관 관련 소식” 등을 전하고 있다. 이러한 메일링 서비스가 연구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조사하였다. 응답자중 석사학위 연구자 63명(71.6%), 박사학위 연구자 37명(84.0%) 총 100명(75.7%)의 연구자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하지만 전공분야별로 인문사회분야에서 14명(29.1%), 과학분야 6명(15.0%), 기술분야 12명(27.3%)의 총32명(24.3%)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었다. 메일링의 내용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전공분야의 파악 등 불필요한 소식 서비스를 줄여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인 인지도를 높여야 하겠다(표 38 참조).

<표 38> 메일링 서비스 인지도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매우 도움이 된다	8(9.1)	63 (71.6)	3(6.8)	37 (84.0)	11(8.3)	100 (75.7)
도움이 된다	21(23.9)		17(38.6)		38(28.8)	
보통이다	34(38.6)		17(38.6)		51(38.6)	
도움이 안된다	20(22.7)	25 (28.4)	4(9.2)	7 (16.0)	24(18.2)	32 (24.3)
매우 도움이 안된다	5(5.7)		3(6.8)		8(6.1)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학분야		기술분야		계
매우 도움이 된다	3(6.3)	33 (70.9)	4(10.0)	34 (85.0)	4(9.1)	32 (72.7)	11(8.3)
도움이 된다	10(20.8)		17(42.5)		11(25.0)		38(28.8)
보통이다	21(43.8)		13(32.5)		17(38.6)		51(38.6)
도움이 안된다	11(22.8)	14 (29.1)	5(12.5)	6 (15)	8(18.2)	12 (27.3)	24(18.2)
매우 도움이 안된다	3(6.3)		1(2.5)		4(9.1)		8(6.1)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3) DB교육 및 이용안내

도서관에서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DB등에 대하여 “DB 자료 안내 및 이용 방법”을 학위 연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이 연구자에 얼마나 긍정적으로 인지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총 응답자 중 DB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석사학위 연구자 56명(63.6%), 박사학위 연구자 26명(59.1%)으로 전체 응답자중 총82명(62.1%)이 교육을 수강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수강하지 않은 응답자 또한 50명(37.9%)이나 되었다는 것은 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의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하겠다(표 39 참조).

<표 39> DB교육 수강여부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수강하였다	56(63.6)	26(59.1)	82(62.1)
수강하지 않았다	32(36.4)	18(40.9)	50(37.9)
계	88(100)	44(100)	132(100)

또한 DB교육 수강 경험이 있는 연구자 82명에게 후배들에게 추천할 만한 교육으로 진행되었는지 조사하였다. 58명(70.7%)이 긍정적인 응답을 석사학위 연구자 16명(28.6%), 박사학위 연구자 8명(30.8%) 총24명(29.3%)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교육의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겠다(표 40 참조).

<표 40> DB교육 추천여부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추천하고 싶다	40(71.4)	18(69.2)	58(70.7)
추천하고 싶지 않다	16(28.6)	8(30.8)	24(29.3)
계	56(100)	23(100)	82(100)

4) 전자정보원 이용안내

이용자들은 컴퓨터를 통해 직접 정보를 얻기를 원하며 전자정보원에 대한 지도와 훈련을 가장 많이 받고자 한다(Fidel 1997).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 자료는 자료를 제공하는 출판사의 특성에 따라서 이용 방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연구자에게 이용 방법이나 해당 자료에 대한 이용 정보를 몰라 불편을 느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34명(25.8%)이 불편함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불편함이 도서관 인지도를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도서관 홈페이지, 안내를 통한 개선 등이 필요하다(표 41 참조).

<표 41> 전자정보원 이용안내

단위: 응답자 수(%)

구분	석사	박사	계	
매우 불편하였다	4(4.5)	1(2.3)	5(3.8)	34(25.8)
불편하였다	20(22.7)	9(20.5)	29(22.0)	
보통이다	32(36.4)	16(36.4)	48(36.4)	98(74.2)
불편하지 않았다	32(36.3)	18(36.3)	50(37.8)	
계	88(100)	44(100)	132(100)	

5) 상호대차 이용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위하여 타 기관과 상호대차를 통한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학위 연구자에게 상호대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수한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24명(60.0%)이, 박사학위 연구자 64명(69.6%) 총88명(66.7%)의 응답자가 상호대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2 참조).

<표 42> 상호대차 이용 여부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있다	24(60.0)	64(69.6)	88(66.7)
없다	16(40.0)	28(30.4)	44(33.3)
계	40(100)	92(100)	132(100)

6) 색인, 초록 정보제공

과학기술과 더불어 발달한 전자매체의 발달은 도서관 소장 자료의 검색 서비스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책자로 제공되어 이용하던 제2차 정보원의 기능이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문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연구자들에게 검색되어 서비스 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연구자의 인지도를 살펴보고자 조사를 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61명(69.3%), 박사학위 연구자 25명(56.8%), 총86명(65.2%)이 긍정적인 응답을 했으나 부정적 의견 또한 학위별로 석사학위 연구자 27명(30.7%), 박사학위 연구자 19명(43.2%)으로, 전공분야별로는 인문사회분야 18명(37.5%), 과학분야 11명(27.5%), 기술분야 17명(38.6%) 총46명(34.8%)의 응답자가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제공만으로는 연구자들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는 아니라 할 수 있겠다(표 43참조).

<표 43> 색인, 초록 정보 제공 여부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도움이 된다	61(69.3)	25(56.8)	86(65.2)
도움이 되지 않는다	27(30.7)	19(43.2)	44(34.8)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도움이 된다	30(62.5)	28(72.5)	27(61.4)	86(65.2)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37.5)	11(27.5)	17(38.6)	46(34.8)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3.5 도서관 인지

1) 전공자료 중 외국자료(언어구분)

학위 연구자에게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전공자료 중 외국자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국내자료를 제외한 모든 언어를 외국자료라 칭하였으며 조사의 응답으로는 석사학위 연구자 47명(53.4%), 박사학위 연구자 22명(50.0%) 총69명(52.2%)의 응답자가 전자 자료 형태의 외국자료 제공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분야별 응답에서도 전자 자료의 제공을 더 필요로 하고 있으며 전자, 인쇄 모두 필요하다고 인문/사회분야 14(29.2%), 7명(17.5%), 8명(18.1%) 총29명(22.0%)이 응답하였다. 전체적인 응답자의 19명(14.4%)만이 외국자료에 대하여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113명(85.6%)의 응답자가 외국자료에 대한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표 44 참조).

<표 44> 전공자료 중 외국자료(언어구분)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11(12.5)	8(18.2)	19(14.4)
전자 자료가 더 필요하다	47(53.4)	22(50.0)	69(52.2)
인쇄 자료가 더 필요하다	10(11.4)	5(11.4)	15(11.4)
모두 더 필요하다	20(22.7)	9(20.5)	29(22.0)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3(6.3)	8(20.0)	8(18.2)	19(14.4)
전자 자료가 더 필요하다	25(52.0)	20(50.0)	24(54.6)	69(52.2)
인쇄 자료가 더 필요하다	6(12.5)	5(12.5)	4(9.1)	15(11.4)
모두 더 필요하다	14(29.2)	7(17.5)	8(18.1)	29(22.0)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2) 도서관 방문 포기 현황

도서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으로 원하는 자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석사학위 연구자 38명(43.2%), 박사학위 연구자 19명(43.2%) 총 연구자 57명(43.2%)이 “도서관 방문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을 하였으며 전공별로는 인문/사회분야 20명(41.7%), 과학분야 22명(55.0%), 기술분야 15명(34.1%)이 필요한 자료가 있지만 도서관에 오는 불편함으로 자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5 참조)

<표 45> 도서관 방문 포기 현황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있다	38(43.2)	19(43.2)	57(43.2)
없다	50(56.8)	25(56.8)	75(56.8)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있다	20(41.7)	22(55.0)	15(34.1)	57(43.2)
없다	28(58.3)	18(45.0)	29(65.9)	75(56.8)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3) 도서관 자료 수서 정책

연구자에게 “도서관 자료매체 수서 정책 중 영구 소장할 수 있는 인쇄 자료 수집보다 전자 자료 수집(최신성유지, 연간사용권만 확보)에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라는 설문을 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48명(54.5%), 박사학위 연구자 30명(68.2%), 총응답자 78명(59.1%)이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분야 24명(50.0%), 과학분야 29명(72.5%), 기술분야 25명(56.8%)의 응답자가 전자자료 수집에 좀더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응답을 하였고, 석사학위 연구자 보다 박사학위 연구자가 전자 자료의 수집에 더 적극적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의 결과는 연구중심대학의 연구결과물 작성자라 할 수 있는 박사학위 연구자의 요구로 앞으로 대학의 목표에 따른 도서관의 정책에 큰 전환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표 46 참조).

<표 46> 전자매체 자료 수서 정책

단위: 응답자 수(%)

구분	석사	박사	계
적극적이어야 한다	48(54.5)	30(68.2)	78(59.1)
그렇지 않다	40(45.5)	14(31.8)	54(40.9)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학	기술	계
적극적이어야 한다	24(50.0)	29(72.5)	25(56.8)	78(59.1)
그렇지 않다	24(50.0)	11(27.5)	19(43.2)	54(40.9)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4) 도서관 신뢰도

연구자에게 도서관의 자료 구입 및 관리, 서비스 정책 등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75명(85.3%), 박사학위 연구자 38명(86.4%) 총응답자 113명(85.6%)이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도서관에 대한 신뢰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도서관에서 연구자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이기는 하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 또한 19명(14.4%)이나 되었다. 전공분야별로 살펴보면 인문/사회분야 42명(87.5%), 과학분야 34명(85.0%), 기술분야 37명(85.6%)이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으나 부정적인 응답 또한 인문/사회분야 6명(12.5%), 과학분야 6명(15.0%), 기술분야 7명(14.4%) 전체 19명(14.4%)이 응답하였다 (표 47 참조).

<표 47> 도서관 신뢰도

단위: 응답자 수(%)

구분	석사		박사		계	
매우 신뢰 한다	8(9.1)	75 (85.3)	4(9.1)	38 (86.4)	12(9.1)	113 (85.6)
신뢰한다	32(36.4)		18(40.9)		50(37.9)	
보통이다	35(39.8)		16(36.4)		51(38.6)	
신뢰하지 않는다	11(12.5)	13 (14.7)	6(13.6)	6 (13.6)	17(12.9)	19 (14.4)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2(2.2)		0		2(1.5)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매우 신뢰한다	5(10.4)	42 (87.5)	3(7.5)	34 (85.0)	4(9.1)	37 (85.6)	12(9.1)
신뢰한다	15(31.3)		20(50.0)		15(37.9)		50(37.9)
보통이다	22(45.8)		11(27.5)		18(38.6)		51(38.6)
신뢰하지 않는다	6(12.5)	6 (12.5)	5(12.5)	6 (15.0)	6(12.9)	7 (14.4)	17(12.9)
매우 신뢰하지 않는다	0		1(2.5)		1(1.5)		2(1.5)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5) 도서관 역할의 인지도

연구자에게 연구중심대학에서 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73명(82.9%), 박사학위 연구자 38명(86.3%) 총111명(84.0%)의 응답자가 도서관 역할의 중요성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다. 석사학위 연구자 보다는 박사학위 연구자들이 연구중심대학에서의 도서관 역할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1명(15.9%)의 응답자는 부정적인 응답을 하였다(표 48참조).

<표 48> 도서관 역할의 인지도

단위: 응답자 수 (%)

구분	석사		박사		계	
매우 중요하다	42(47.7)	73 (82.9)	23(52.3)	38 (86.3)	65(49.2)	111 (84.0)
중요하다	22(25.0)		10(22.6)		32(24.2)	
보통이다	9(10.2)		5(11.4)		14(10.6)	
중요하지 않다	7(8.0)	15 (17.1)	1(2.3)	6 (13.7)	8(6.1)	21 (15.9)
매우 중요하지 않다	8(9.1)		5(11.4)		13(9.8)	
계	88(100)		44(100)		132(100)	

구분	인문/사회		과 학		기 술		계
매우 중요하다	28(58.4)	40 (83.3)	20(50.0)	35 (87.5)	17(38.7)	36 (81.8)	65(49.2)
중요하다	8(16.7)		11(27.5)		13(29.5)		32(24.2)
보통이다	4(8.3)		4(10.0)		6(13.6)		14(10.6)
중요하지 않다	4(8.3)	8 (16.7)	3(7.5)	5 (12.5)	1(2.3)	8 (18.2)	8(6.1)
매우 중요하지 않다	4(8.3)		2(5.0)		7(15.9)		13(9.8)
계	48(100)		40(100)		44(100)		132(100)

IV. 결 론

본 연구는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필요한 국가 인적자원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중심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의 지원시설로 대학도서관이 연구결과물의 생성자인 석·박사학위 연구자에게 핵심적 학술 및 연구정보의 제공자로서 도서관 활용 및 역할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 조사연구를 통하여 발견된 사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가 연구에 관련된 자료를 검색하고 입수까지의 소요기간에 대한 인지는 45.5%의 연구자가 “논문작성 전체 기간에 40%”가 넘는다고 하였고, 45.5% 연구자의 주 자료정보원으로 색인/초록/통계, 학위논문이 많이 이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대학도서관을 통한 관련 자료 검색 및 입수에 대한 인지는 59.1%의 연구자가 “전체논문 자료에 40%이하”를 도서관에서 검색 및 입수 한다고 하였다. 이들의 주요 이용 기관을 조사해 보니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KERIS 등의 학술포털과 Google, Naver등 일반검색엔진의 이용률이 높게 나왔다.

셋째, 학위연구자의 자료정보원별 매체 이용률을 살펴보면 전자 자료매체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자료 구독 시에는 65.2%의 찬성으로 전자 자료매체의 구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이 전자 자료매체 수집에 59.1%가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한다.

넷째, 도서관의 수서정책에 대한 신뢰도는 85.6%로 나타났으나 연구중심대학에서의 도서관 역할의 중요도는 84.0%로 신뢰도보다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도서관의 역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도서관은 학위 연구자의 연구 결과물 생성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연구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연구자의 자료정보원인 색인/초록/통계, 학위논문 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장서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둘째, 학위연구자 전체대상이 아닌 분야별 연구자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

한 홍보와 교육의 개발이 필요하며 사서의 능력도 연구자의 기대와 변화하는 요구에 따라 계속 발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신규 자료 구독 시 전자 자료매체에 대한 도서관의 집중적인 연구가 있어야 하겠다. 연구자들은 전자 자료매체에 대한 접근을 점차로 늘려나가기를 요구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도서관에 대한 연구자의 요구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연구자의 요구에 도서관의 적응도는 연구자의 도서관 활용에 영향을 줄 것이다.

대학도서관은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 교육에 필요한 학술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의 목표 달성을 지원한다. 대학도서관이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조사 분석하는 것은 대학도서관의 질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의 발전 방향을 설정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과학기술의 발전,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구자들의 요구와 기대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도서관은 인식하고 이와 같이 조사 연구는 기술과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맞게 수정, 보완되어 이루어져야 하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 연구자에게 연구중심대학의 연구지원 시설인 도서관의 활용 및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참 고 문 헌

<국내문헌>

- 고철환. 2000. 창조적 지식기반사회와 대학의 역할. 임지순, 강명구외. 『새 천년의 고학기술과 지식기반사회』. 서울: 나남출판.
- 곽동철. 2006. 해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 예산 규모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151-174.
- 곽동철, 김기태, 윤정옥. 2006. 대학도서관의 환경변화와 문제점의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7(4): 1-26.
- 권육현 외. 2002.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 및 성과관리 방향』.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권혁주. 2000. 『세계적 수준 10개 연구중심 대학의 교육지표와 연구진흥 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김선미. 1998. 프랑스의 대학교육. 『비교교육연구』, 6: 261-272.
- 김성진. 2003. 『대학교-이상, 현실 그리고 개혁』. 서울: 한국교육미디어.
- 김현자. 2008. 「편목규칙에 있어서 자료표시의 변천고」.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김현진, 임진호. 2006. 『교육정보화의 효과: 학습 교수학습문화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대통령자문교육혁신위원회. 2005. 『대학교육의 질 향상 방안 모색』. 서울: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 민철구, 이춘근. 2000. 『연구중심대학의 효과적 육성방안』.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민철구, 송완흡, 박상완. 2003. 『대학의 연구능력 확충을 위한 연구지원체계의 혁신』. 서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사공철 외편. 1996. 『문헌정보학용어사전』.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서남수. 1998. 연구중심대학, 이렇게 하자. 『연세대교육포럼』, 서울: 연세대학교. [cited 2008. 11. 1]. <<http://cat2.riss4u.net>>.
- 서울대학교. 2006. 『서울대학교 백서, 2004-2005』. 서울: 서울대학교.
- _____. 2008 『서울대 소개』. [cited 2008. 11. 1].
<http://snu.ac.kr/about/ab0101_tab1.jsp>.
- _____. 2008 『통계연보』. 서울: 서울대학교.
- _____. 2008 『통계현황』. [cited 2008. 11. 1].
<<http://snu.ac.kr/about/ab0103.jsp>>.
- 서울대학교 연구처. 2008. 『통계자료』. [cited 2008. 11. 1].
<<http://research.snu.ac.kr/>>.
- 손승남. 2005. 독일 대학교육의 현황과 개혁정책: 전망과 시사점. 『비교교육연구』, 15(1): 49-71.
- 송기창. 2003. 『국가의 대학교육 투자 실태 분석』.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오성삼. 1999. 『세계 대학의 이해』. 서울: 건국대학교 출판부.
- 윤수인. 2003. 『21세기 대학 어디로 갈 것인가?』. 부산: 부산대학교 출판부.
- 윤정일 외. 1995. 『서울大學校 豫算制度 및 教育費 算定에 관한 研究』. 서울: 서울大學校 財政委員會.
- 이경자. 2006. 중국 대학 교육 개혁의 동향. 『비교교육연구』, 16(1): 49-73.
- 이광주. 1997. 『大學史.이념·제도·구조』. 서울: 민음사.
- 이란주. 1999. 도서관정보서비스 개선을 위한 웹 검색엔진의 활용. 『한국도서관정보학회』, 추계워크숍: 17-35.
- 이 연. 2005. 「정보환경 변화에 따른 대학도서관 조직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 이현청. 2006. 『대학평가론』. 서울: 문음사.
- 장희익 외. 1995. 『대학 기능 분화를 통한 대학 교육 다양화에 관한 연구』. 서울: 교육부.

- 정동열. 1999. 전자학술저널의 이용행태 분석에 의한 관리방안 연구. 『한문헌정보학회지』, 33(3): 5-21.
- 정보섭. 2006. 『우리나라 대학의 정부연구개발 투자 특성 분석』. 서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정진식 외. 2006.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정태화 외. 2007. 『대학특성화 지도 구축 운영방안』.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전현중. 2001. 「이용자 요구에 기초한 대학도서관 장서개발」.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대학원.
- 조수련. 2005. 「오픈엑세스 자원의 논문 및 저자 연구업적 평가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최길성. 1994. 일본 대학교육의 국제화. 『일본연구학회』, 6: 5-16.
- 한국과학재단. 2008. 중국상해교통대발표세계대학순위분석.
[cited 2008. 11.1].
<http://www.kosef.re.kr/kboard/notice/board_view.php?code=trend_010404&no=1758370&rid=1758370>
- 한상연. 2003. 『외국대학 학사과정의 학사구조 및 운영체제 비교분석 연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한정선. 2006. 『지식 정보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지수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 한혜영. 2005. 연구중심대학의 도서관 지원과 연구경쟁력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9(4): 25-44.

<국외문헌>

- Altbach, Philip G. and Jorge Balán. 2007. *World class worldwide*.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3. *The ALA Glossary of Library and*

- Information Science*. Chicago: ALA.
- 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2008. *ARL Statistics 2005-2006*.
[cited 2008. 11. 1.]. <<http://www.arl.org/stags>>.
- Bradley, Phil. 2007. *How to use Web 2.0 in your library*. London:
Facet.
- Casey, Michael E. and Savastinuk, Laura C. 2007. *Library 2.0: a guide
to participatory library service*. Medford, N.J.: Information
Today, Inc.
- Clark, Burton R. 1999. *Places of inquiry: reserach and advanced
education in modern universit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Cuban, L. 2001. *Oversold and underused: computers in the classroom*.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Fidel, R., 1997. *User-Centered Approach to the Design of Information
systems*. KIST/KAIST 공동 주최 국제 세미나.
- Fothergill, Richard. 1990. *Non-book materials in libraries : a practical
guide*. 3rd ed. London: Clive Bingley.
- Kerr, Clark. 2001. *The Uses of the University*. 5th ed.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The Times. 2008. World university rankings. *Times Higher Education
Supplement*". [cited 2008. 11. 1].
<<http://www.timeshighereducation.co.uk/>>

<부록>

학위논문 작성 시
도서관 활용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에서 석사과정을 이수중인 이태순 입니다.

21세기 대학은 연구기반의 연구중심대학으로 변화를 요구하고 국내의 각 대학들 또한 연구중심대학으로의 변화를 취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연구중심대학에서 도서관 역할을 재조명하고자 학위논문 작성 시 도서관 이용 및 만족도를 살펴보고 문제점과 해결점을 찾아보고자 설문지를 작성 하였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는 논문자료 분석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바쁘시더라도 설문에 답하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8년

한성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석사과정
이태순

* 해당사항에 “V”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학위구분 : 석사() 박사()

나. 전공분야 : 인문/사회분야() 과학분야() 기술분야()

* 논문 작성시 연구 주제 관련 자료의 입수현황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사항에 “V”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전체 논문작성 기간 중 연구 주제 관련 자료의 검색 및 입수기간의 비율을
얼마정도로 인지하고 계신지요?

- 1) 20% 이하 2) 21% ~ 40% 3) 41% ~ 60% 4) 61% 이상

2. 전체 입수된 연구 주제 관련 자료 중 대학도서관을 통하여 얻은
자료의 비율은?

- 1) 20% 이하 2) 21% ~ 40% 3) 41% ~ 60%
4) 61% ~ 80% 5) 81%이상

3. 연구 주제 관련 자료를 검색 및 입수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이용한
기관은?

- () 도서관
() 학술포털 (국회, 국립, 케리스 등)
() 검색엔진 (Google, Naver 등)
() 개인소장정보, 기타

4. 전체 참고한 연구 주제 관련 자료들 중 외국자료(언어구분)의
비율은?

- 1) 50% 이하 2) 51% ~ 79% 3) 80% ~ 90%
4) 91% ~ 99% 5) 100%

5. 논문작성을 위하여 도서관을 직접 방문한 횟수는?

- 1) 1~5회 2) 6~10회 3) 11~15회 4) 수시로

6. 논문작성을 위하여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한 자료검색 횟수는?

- 1) 1~10회 2) 11~20회 3) 21~30회 4) 수시로

* 자료(매체)에 대한 선호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사항에 “V”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7. 입수한 연구 주제 관련 자료 중 전자매체를 통해서 얻은 자료의
비율은?

- 1) 50% 이하 2) 51% ~ 80% 3) 81% ~ 90%

4) 91% ~ 99% 5) 100%

8. 전자 자료를 주로 이용(검색)하는 장소에 체크 해주세요.

- () 도서관
- () 소속대학(연구실)
- () 기타교내 검색실
- () 교외/기타

9. 전자자료 1회 접속 이용 시간은?

- 1) 10분미만 2) 10분~30분 3) 30~60분
- 4) 1~2시간 5) 2시간이상

10. 참고하던 전자 자료가 구독 중단 경험에 있는지요?

- 1) 있다 2) 없다

11. 참고하던 전자 자료의 구독 중단된 사유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요?

-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12. 현재 인쇄 자료로 제공하는 자료를 전자 자료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1) 그렇다 2) 아니다

13. 신규자료 구독 시 전자 자료가 일반화되므로 인쇄 자료는 줄여 나가야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1) 매우 그렇다 2) 그렇다 3) 보통이다
- 4)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14. 전자 자료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자료정보원은?

- 1) 학술지 2) 색인/초록/통계자료 3) 학위논문
- 4) 연구보고서 5) 단행본

15. 인쇄 자료 중 가장 많이 이용한 자료정보원은?

- 1) 학술지 2) 색인/초록/통계자료 3) 학위논문
- 4) 연구보고서 5) 단행본

16. 전자 자료와 인쇄 자료중 어느 쪽을 더 선호 하십니까 ?

전자자료를 선호한다 () --> 18번 문항으로
인쇄자료를 선호한다 () --> 17번 문항으로

17. 인쇄 자료를 선호하시는 이유는?

- 1) 전자 자료의 교내 접속이 제한적이라서 불편하기 때문에
- 2) 구독하고 있는 인쇄 자료가 전자 자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 3) 전자 자료를 찾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 4) 전자 자료의 내용을 신뢰 할 수 없어서

* 도서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홍보 및 교육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18. 도서관 자료 이용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매우 충분하다 2) 충분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지 않다 5) 매우 충분하지 않다
19. 도서관에서 보내준 DB안내 및 서비스 메일링 정보가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1) 매우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된다 3) 보통이다
4) 도움 안된다 5) 매우 도움이 안된다
20.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DB교육 강좌를 수강한 적이 있으신가요?
수강하였다 () ==> 21번 문항으로
수강하지 않았다 () ==> 22번 문항으로
21.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DB교육을 후배들에게 추천하고 싶으신지요?
1) 추천하고 싶다 2) 추천하고 싶지 않다
22. 전자자료 이용 시 이용 방법이나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를 몰라 불편을 느낀 적이 있으신지요?
1) 매우 불편하였다 2) 불편하였다
3) 보통이다 4) 불편하지 않았다
23. 도서관에서 상호대차를 이용하여 자료를 입수한 것이 있으신지요?
1) 있다 2) 없다
24. 원문제공 없이 색인, 초록을 제공하는 검색시스템이 자료검색에 도움이 되는지요?
1) 도움이 된다 2) 도움이 되지 않는다

* 도서관 인식에 대한 설문입니다. 해당사항에 "V" 표시를 해주십시오.

25. 나의 전공분야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 매우 충분하다 2) 충분하다 3) 보통이다
4) 충분하지 않다 5) 매우 충분하지 않다
26. 도서관 전공자료 중 외국자료 제공에 대한 평소의 생각은?
1) 대부분 소장되어 있다 2) 전자 자료가 더 필요하다
3) 인쇄 자료가 더 필요하다 4) 모두 더 필요하다

-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ABSTRACT

A Study on the Effective Method of Using Library in Research University: Focused on Seoul National University

Lee, Tae Soon

Major in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Dep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 way to make the university library play an important role in offering essential studies and the newest research resources for researchers who are working on their master's/doctoral these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concept of 'research university' and the development of research universities in other countries. To know how useful the library is for writing theses, I made some survey questions about a period of research, a preference for material types, library public relations and training courses for users, library reliability. After analyzing the result of the survey, I suggested some available improvements in developing collection of materials, public relations and user education.

These suggestions will help researchers to reduce the time to write their theses by the effective use of the library. In addition, it will improve the importance of the university library which wants to support the university in being one of the major research university in the world.